

페미난장

국가와 사회적 이분법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공론장

2018, 10. 25(목) 오후 7시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

1부. 한반도의 젠더

추재훈 "분단국 남성성: 자기혐오와 여성혐오"

최수지 "한반도 여성성의 구성과 탈분단 페미니즘의 가능성"

박영민 "한반도 내의 젠더·섹슈얼리티 이용 동학"

2부. 이분법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정경직 "속도의 페미니즘과 속도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사유"

최성용 "정치적 올바름은 정치적인가? 올바른가?"

이아름 "당사자성 너머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서."

전소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분단국 남성성: 자기혐오와 여성혐오

추재훈(동국대 북한학과)

“그들도 어떤 점에서는 나처럼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커다란 결함을 만들어냈지요. 그들이 돈과 권력을 쥔 것은 사실이나 그 대가로 죽을 때까지 간을 찢고 허파를 쪼아대는 독수리와 매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중

나는 왜 여성을 혐오할까? 당초 나 스스로를 혐오하기 때문은 아닐까?

[승자남성과 패자남성]

남성성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논의는 코넬이 구분한 네 가지 남성성이다. 승자남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가깝고, 패자남성은 주변적 남성성에 가깝다. 그 사이에는 공모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이 있다. 하지만 코넬도 설명했듯 남성성은 특정한 가치나 개념이 아니다. 남성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남성의 성질이기도 하지만 남성이 아닌 사람의 성질이기도 하고, 어떤 성질인 동시에 일종의 상(像)이기도 하다.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된 남성성은 남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요컨대 한 사람이 집 밖에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집 안에서는 공모적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면? 헤게모니적 남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주변적 남성성을 지향한다면? 혹은 어떤 사회에서 거의 헤게모니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 실은 주변적 남성성에 가깝다면?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쪽 극단에 승자남성이라는 상을, 그 반대편의 극단에 패자남성이라는 상을 설정하고, 모든 남성이 그 사이의 스펙트럼 중 어디엔가 위치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힘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요소들이 사람들 사이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힘이고, 그 이외에는 지략이나 재력이다. 학술적 깊이, 목소리, 진중한 태도, 연애 상대로서의 매력, 키, 나이나 권위, 사회적 권력…… 무수한 기준이 있다.

승패의 결정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주목했던 것은 남성 사이의 승패와 우열이다. 모든 남성은 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이라는 추상적 남성성 혹은 남성상(像) 사이에 있고, 매 순간 상대적 승자와 상대적 패자로 분화하며, 이것이 성차별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다만 패자남성에게 정말로 ‘패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고민스럽다. ‘남성’을 말할 때, 남성은 승자든 패자든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계급으로서 남성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넓은 범위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개발도상국 국민 등. 흔히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패자남성은 남성 세계에서나 패자일 뿐이며, 남성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승자가 된다.

그럼에도 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을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다. 굳이 남성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남성이기에 남성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페미니즘을 생각할 때 남성 간의 승패 분화가 남성우월주의의 고착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물론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차별의 근간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으로서는 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이 갈라지는 수많은 기준이 있으며 이 또한 부조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자각해야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기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 또한 부조리하다는 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남성이 성차별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자신은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나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지 않고 오직 남성 사이에만 있거나(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의 구분만 알고 있거나) 혹은 여성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나 경제력 등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정치권력의 유무나 생산수단 소유 여부는 성을 가르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남성의 자기혐오와 여성혐오]

외모가 예쁜 여성과 사귀거나 결혼하는 어떤 남성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식의 발화가 가능한 것은 왜일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는 말 속에는 외모가 예쁜 여성과의 교제가 일종의 보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예쁜 여성과의 교제가 보상이라는 것은 예쁜 여성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예쁜 여성이라는 보상은 승자남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남성으로서 매력이 넘치거나 승자남성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쁜 여성과 교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별 매력도 없고 승자남성의 특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승자남성만이 만날 수 있는 예쁜 여성을 만나고 있으니, (윤희라는 세계관 속에서)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 특이한 것은, ‘승자남성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를 만난다’는 명제 뿐만 아니라 그 역인 ‘예쁜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승자남성이다’는 명제까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예쁜 여성과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은 여타 평범한 남성들이 하지 못한 일이다. 즉, 어떤 남성은 예쁜 여성을 소유함으로써 승자가 된다. 예쁜 여성은 승자남성의 결과물인 동시에 승자남성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대체 여성은 어디까지 도구화된 것일까? 왜 그런 걸까?

여성이 소모품처럼 남성에게 제공되는 것은 단순히 남성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이 승자와 패자로 갈리기 때문이다. 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이 분화하는 대표적인 원인인 전쟁을 생각해보자. 승자남성은 패자남성이 가진 것을 탈취하거나, 패자남성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선점한다.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한다. 전쟁 자체가 물화된 여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패자남성측 여성은 전리품이 된다. 승자남성은 마음대로 여성을 탈취하며, 그래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잠시나마 전쟁이 없는 상태에도 이 질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성은 전쟁의 결과에 따라 언제나 전리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예비 전리품으로 전략했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그 남성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전장에서 승리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여성을 소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작용하기 시작했다. 어떤 여성을 소유하느냐가 남성의 승자성과 패자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 것이다. 승자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숨겨진 매력이 있다”거나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발화가 가능하다. ‘서로 사랑해서’ 따위의 이유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여성혐오다.

남성들이 승패로 갈린 이유로 여성이 소모품으로 전략한 이후에는, 다시 이것이 남성 승패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여성혐오다. 이런 방식의 여성혐오가 극단화된 것이 여성 신체의 이용 혹은 제공이다. 혈벗은 여체가 군인이나 남성의 사기를 올려준다는 말도 여성을 소모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발화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남성이 원하는 대로 전시되는 여체는 승자남성이 가질 수 있는 보상으로써 군인이나 남성을 자극한다. 여성혐오다.

성구매에 관해서, 국가가 성구매를 합법화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공격 매춘도 마찬가지로 여성혐오적이다. 국가가 여성 신체의 성상품화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결국 패자가 된 남성, 즉 본인이 원하는 언제나 섹스를 하지 못하는 남성을 국가라는 승자가 보살펴주는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여성이라는 도구를 통해 패자남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여성혐오다.

이것이 체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도 있다. 조선을 식민지로 관리하던 일본제국은 조선에 일본 여성을 공급하듯이 조선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을 장려했다. 이는 패자 남성인 조선 남성을 일본 여성과 결혼시킴으로써 승자남성인 일본 남성의 위치로 끌어 올리고, 이들을 내선일치와 대동아공영권 완성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여성혐오다.

최악의 경우도 있다. 패자남성이 승자남성에게 자발적으로 여성을 헌납하는 것이다. 그 치욕적인 일을 무슨 모범적인 일인 냥 당당하게 앞장서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며 최선을 다해서 해낸 것이 한국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 관광이 증거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침을 뱉을 대단한 짓을 잘도 했다. 여성혐오다.

특히 패자남성은 남성 세계에서 남성성을 발휘하지 못한 울분을 여성에게 뽐내버린 방식으로 분출하기 쉽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설문에 의하면, 게임 속에서 레벨이 낮은 남성들은 팀원이 여성일 때 유독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자신이 여성보다 우월해야 하는데, 레벨은 자신의 우위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공격성을 통해 우월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승자지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승자가 되지 못한 패자남성의 분노는 감히 승자남성을 향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성혐오다.

여성의 도구화는 여성에게도 심각한 균열을 만든다. 원래부터 승자남성과 함께 하던 여성과 패자남성과 함께하던 여성은 구분된다. 성녀/창녀 이분법의 시발점이다. 승자남성과 함께하던 여성은 성녀, 패자남성과 함께하던 여성은 창녀로 전락한다. 남성의 목표가 승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패자남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자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린다'는 식의 생각도 여성혐오인 이유다. 일차적으로 이 말은 여성을 자기 능력을 쌓을 생각 없이 능력 있는 남자나 쫓아다니는 존재로 격하 시킨다. 하지만 더욱 핵심적인 이유는, 여성이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생활의 안락함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생존을 위해서 강한 남성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혐오다.

[분단국 남성성]

분단과 여성혐오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전쟁이다. 모든 남성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의 도구로 국가의 호출을 받는

다. 앞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이것이 여성혐오의 기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여성혐오의 기원을 매 순간 재생산해내는 공간이다.

지인이 군복무를 하던 시절, 계급이 낮은 병사가 실수를 하면 “너 오늘부터 금딸이야”라거나 “휴가 나가서 섹스하지 마. 넌 그럴 자격도 없어”라고 질책하는 선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말이 진짜 심각한 잘못을 할 때는 나올 수 없는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성욕을 금지하는 것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은 섹스가 승자의 전리품이며 패자에게는 불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인의 사기를 올려주겠다고 비키니를 입은 어린 여성을 불러 포즈를 잡게 하고, 성인 잡지의 유통을 일종의 산소 공급처럼 받아들이고, 휴가 때 연인과든 성매매 여성과든 섹스를 하고 왔는지를 가장 먼저 묻는 문화를 낚낚거리는 것은 모두 여성을 승자의 전리품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도 강화된다. 남성들이 제아무리 자기들끼리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무용담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부여해봐야, 막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은 군 복무를 통째로 무의미하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군 면제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성 등에 대한 경멸이 탄생한다. 군 면제자에 대해서는 공직자를 맡을 자격이 안 된다는 비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든 지휘제거든 무엇이라도 하라는 강요가, 여성에 대해서는 군대에 가라거나 군가산점제를 인정하라는 주장이 대두된다.

이 집단적 승자성 조장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보다 강력하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본인이나 자녀의 미심쩍은 군면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 징병제는 서구에서 시민권의 발달과 동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 징병제는 시민권을 발달을 넘어 승자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기제다.

식민지 남성성이란 것이 있다. 구한말 이후 외세, 특히 일본에 지배당한 식민지 조선의 남성들이 한반도에서 만든 기형적인 남성성을 의미한다. 식민지의 남성은 국가 외적으로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남성에 의해 패자, 즉 ‘여성’인 동시에 국가 내적으로는 여성에 비해 강력한 위치에 있는 ‘남성’이다. 승자성과 패자성이 공존하는 긴장 상태에 빠져있다. 국가적으로 여성이라는 치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식민지 남성성의 핵심은 승자지향성이 낳은 자기혐오, 자기혐오가 낳은 여성혐오다.

정희진은 식민지 남성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① 남성은 보편적 주체로서 자신을 국가나 민족과 동일시한다.
- ②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국내 여성과의 관계에서 구성하기보다는 외세와의 관계에서 파악한다. 이때 자신은 강대국에 비해서 약자이므로 ‘여성’으로 정체화한다.
- ③ 하지만 자신은 ‘본질적’으로는 남성이므로 강자에 저항하거나 강대국을 ‘이용’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띠는데, 이때 자기 옆의 여성들이 자신과 뜻을 함께하지 않고 평등을 외치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 ④ 여성 해방은 계급 해방이나 민족 해방 이후의 과제이다.
- ⑤ 이때 여성의 역할은 강자와의 투쟁에 바쁜 자신을 대리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즉 여성은 성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이다.
- ⑥ 동시에 자신이 지쳤을 때는 언제나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정치적 ‘동지’여야 한다.
- ⑦ 자원이 부족할 때는 자국 여성에게 적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 먹을 것을 얻어 오라고 강요한다. 이때 우울해하거나(대표적으로 이상, <날개>), 자존심이 상해 여자를 도리어 두들겨 패거나 여성을 혐오한다. 환향녀(화냥년)라는 낙인을 찍어 공동체에서 매장한다(안정호, <은마는 오지 않는다>) 혹은 중산층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피해 여성을 진정한 민중으로 숭배하거나(김기덕, <해안선>) 분노로 인해 스스로 미친다(남정현, <분지糞池>).
- ⑧ 손상된 자신과 아버지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어머니와 누이’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거나 “이 영화를 아버지에게 바친다”(이광모 감독, <아름다운 시절>).
- ⑨ 좌파 민족주의 진영은 가해국(일본)과의 투쟁에서 “우리에게 ‘위안부 카드’가 있다.”며 외세 협박용으로 삼거나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대신 경제 협력이나 군사 원조를 받아낸다. 강대국에게 군사력이 협상할 수 있는 힘이라면, 한국 남성에게 그 자원은 여성이다.
- ⑩ 자신의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성찰이나 강자에 대한 저항이지만, 강자는 멀리 있거나 강대국 자체도 균질적 존재(여성도 흑인도 있다)가 아니므로 ‘도리가 없다’. 결국 술을 마신다. 무기력, 자기 연민, 고뇌하는 자기 도취 상태에 있다.

식민시대는 끝났다. 한국 남성 위에 명시적인 승자로 군림하는 타국은 없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있을지 모르나 승패가 나뉘는 것은 아니다. 현대 한국남성은 일제에 복종했던 식민지 조선의 남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식민지 남성성의 주요 특성인 승자성과 패자성이 공존하는 긴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 남성이 겪었던 승자성과 패자성의 마찰은, 승자성과 패자성이 각각 국외와 국내에 있으면서 국외가 국내가 경합하는 차원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성은 승자성과 패자성 간의 갈등을 국외와 국내에 각각에서 모두 경험한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단국 남성은 아직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분단은 남성을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승자와 패자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인간으로 남겨놓았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에게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다. 승자도 패자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과 패자가 되어선 안된다는 두려움은 더욱 극심하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분단의 폐습에 의해 승자남성과 패자남성의 갈등과 혐오가 더욱 심화되었다.

식민지 남성성의 구조를 차용해 분단국 남성성을 정의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1) 보혁을 막론하고 남성은 보편적 주체로서 군복무를 통해 자신을 국가나 민족과 동일시하고 국내외의 모든 전투에서의 승자가 되고자 하며 그 핵심 기준은 군복무 여부다(승자지향성).
- (2)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외세(북한)와의 관계에서 파악할 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승자도 패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성별을 명확히 정체화하지 못한 잠재적 ‘남성’인 동시에 잠재적 ‘여성’이다(“북한의 군사력이 막강해 승리를 점칠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필요하다”).
- (3) 하지만 자신은 ‘본질적’으로는 남성이므로 남북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결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는데, 이때 자신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것은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라고 생각한다(빨갱이, 종북 / 수구꼴통, 적폐).
- (4)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국내 ‘여성’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때 승자남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자를 ‘여성’ 즉 패자의 범주에 몰아넣는데 자신 또한 그 다양한 굴레 속에서 잠재적 ‘남성’이자 잠재적 ‘여성’이다(승자남성/패자남성).
- (5) 하지만 자신은 ‘본질적’으로는 남성이므로 남성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준에 한꺼번에 달성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고 애쓰는데, 이때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기준을 무시하며 평등을 외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여자도 군대가라”, “나는 비양심적이라 군대 갔냐”).
- (6) 여성 해방이나 소수자·약자 권익 보호는 승전이나 종전 이후의 과제이다.(해일과 조개)
- (7) 이때 여성의 역할은 승리를 위한 투쟁에 바쁜 자신을 응원하고 보좌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즉 여성은 성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이 지쳤을 때는 언제나 남성의 편에서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정치적·군사적 ‘동지’여야 한다.(‘12.19 투표하세요’, ‘나와라 정봉주’)
- (8) 자원이 부족할 때는 자국 여성에게 동맹국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 먹을 것을 얻어 오라고 강요한다(기지촌 여성, 기생관광). 양갈보나 기생 호스티스라는 낙인을 찍어 공동체에서 매장한다 혹은 피해 여성을 진정한 애국자(민간 외교관)로 숭배한다.
- (9) 손상된 자신과 아버지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어머니와 누이’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한다(군가산점제).

-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인간'을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
- 왜 하필 자지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우월한 지위를 독점했을까?
- 물리적 힘이 강하기 때문일까?
- 전쟁이 남성위주의 위계를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 모계사회는?
- 우리에게 군대란 뭘까?
- 남성이 자기혐오를 한다면 여성혐오와 뭐가 다를까?
- 남성의 자기혐오를 '남성혐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 분단은 혐오를 낳기만 할 뿐일까?
-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미소지니'를 모르기 때문일까?
- 분단이 여성혐오를 생산한다면 북한에서는 어떨까?

분단된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 한반도 여성성의 구성과 탈분단 페미니즘의 가능성(부제) -

최수지

여성으로 길러지길 거부하기

“나는 저녁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면서 남편 퇴근하길 기다리는 여자가 되는 건 상상조차하기 싫어.”

중학교 시절, 한 친구에게 나는 위와 같이 말했다. 열변을 토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어떤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애초에 친구가 의도한 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인데 어떻게 ‘살기 싫은지’를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이는 동문서답이다. 그러나 당시 내가 지냈던 삶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수많은 인생의 형태와 방향 중에서도, 그 순간 왜 굳이 ‘가정주부가 되기 싫다’는 이야기를 골라서 했을까? 직업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 가치나 윤리관이 될 수도 있으며,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한) 여성이 아닌 삶’이라는 프레임에 집착했다.

이런 기질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다. 가정통신문 장래희망란에 ‘현모양처’라고 적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적어오는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고개를 가우뚱했다. 장래희망이라는 거창하고 근사한 물음과 어울리지 않는, 매우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왜 자기의 인생을 남편과 아들에 의해 규정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공부하는데 힘내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사다주었다. 유리구두 모양 장식품이었다. 엄마는 선물가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쁜 장식품을 발견해 사온 거지만, 나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연상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냈다. “남자한테 시집 잘 가려고 공부하기는 싫다”고 엄마에게 따졌고,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빠는 “고작 선물 하나 가지고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꾸짖었다. 나는 결국 애꿎은 유리구두 장식품을 독서실 책상 앞에 갖다놓고 한참을 울었다.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배타적 이성애, 정상 범주의 결혼, 가족 제도에 목숨 거는 일이 싫었다. 남자친구의 경제력에 기대어 데이트를 하고, 관성과 관습에 따라 가정을 꾸리려는 이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었다. 그러나 페미니즘적 감수성을 키운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예전에 내가 품었던 생각들 자체가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여성들을 ‘인싸’에서 몰아내는 사회구조, 그 결과로 탄생한 현상의 이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이다. “나는 집에서 쿠키를 굽고 차를 마시기보

다는 내 직업적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판에) 나왔다”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나의 과거 발언들은 젠더감수성의 부족, 다시 말해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결여한 데에서 기인한다.

신자유주의와 명예남성

그렇다면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장장 20대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에서 ‘보통’이라고 생각되는 여성상에 대해 그토록 학을 떼며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했을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내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추적해야만 이 물음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다. 나는 90년대 초반에 태어나 20세기의 끝자락과 21세기 첫 무렵에 성장기를 보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조건이었고, 여자도 노력하면 대학에 갈 수 있고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상식이었다. 동시에 IMF, 금융위기 같은 용어들이 범람하기 시작하고, 동네에 치킨집이 하나둘씩 늘어나던 때였다.

21세기의 시작은 화려하지만 암울했다. 계급과 젠더에 상관없이 누구나 힘들고 지치는 시대였다. 스무 살이 되던 해, 때마침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바탕 인기몰이를 했다. 온 나라 청년들이 다 아프다는데,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데, 여성이라고 딱히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진학해도 끊임없이 인턴을 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다. 약자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고, 꿈을 좇아 앞만 보고 달리는 건 칭송 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

나 또한 ‘남자와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 룰에 관심이 없거나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낙오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었고, 나는 이들과 필사적으로 분리되려고 했던 것 같다. 기존의 여성들과는 다른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여성으로 길러지길 거부함과 동시에 실존적으로는 여성이라는 삶의 조건을 획득했고, 여기에서 내 안의 여성 혐오와 자기 분열은 시작되었다.

남자들이 구축해놓은 제도권에서, 남자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남자들을 이기고 싶었다. 즉, 나는 노골적으로 남성의 세계에 편입하길 원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내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여성이라는 건 굳이 자랑할 만한 일도, 대놓고 드러낼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필사적으로 여성이라는 특정 젠더 정체성과 분리되길 원했고, 그들과의 우열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남성 세계에 한 발을 들여놓았음을 확인하며 안도했다. 그렇게 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뺏속부터 ‘명예남성’으로 길러졌다.

여성혐오적 대학사회

나는 10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중에서 OO이가 제일 예쁘다”는 선배들의 ‘얼평(얼굴 평가)’을 당연한 덕담처럼 들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학번이 한참이나 위인 남자 선배가 “우리 OO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문제야.”라는 말을 면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도 호호 하고 웃어넘기던 때였다.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진보 운동, 노동이나 계급 문제에 관한 급진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지만 유독 젠더 영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마인드에 의문을 던지는 이는 없었다. 대학 입학 비율이나 입학 성적에 있어서도 여자가 남자를 앞서가는 시대에 ‘성별 자유 경쟁’은 현실적 리그처럼 느껴졌다. 젠더가 또 하나의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없었고, 따라서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러한 대학 사회에서 많은 여학생들은 명예 남성으로 둔갑해 살아갔다. 불편한 발언에도 얼굴 표정을 구기지 않는 법을 배웠고, 남자들의 세계에 편입해 살아가는 처세술을 익혔다. 능력에 있어서는 남자와 동등하게 경쟁하되, 여성성이 갖는 강점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함도 있어야 했다.

또, 남성성의 옷을 입고 여성·약자 혐오에 동참할 줄도 알아야 했다. 이러한 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류에서 어김없이 탈락했다. 대학생활은 사회의 축소판이었고, 조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보는 척도였다. 낙오자가 되기 싫었고, 조직의 중심에 서고 싶었던 나는 남성들이 만든 질서를 뿌리 깊이 내면화했다. 대학생활 내내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명예 남성이 되기 위해 몸부림쳤다. 승자가 되기 위해 가해자의 편에 서길 서슴지 않았고, 패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명예남성이 무엇인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준비했다. 한 여성 외교관이 쓴 자기계발서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

국제사회를 무대로 뛰는 여성이라면 섬세한 여성성과 속도감 있는 남성성을 겸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이나 세심함은 기획이나 관리 등의 업무에서 탁월한 장점이 된다. 그러나 여성 특유의 세심함이 지나쳐 매번 앞뒤를 살피고 하나하나 따져가는 확인 과정이 늘어지다 보면,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남성의 추진력이다. 빠른 판단력, 정해진 방향을 향해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 이런 성향은 애당초 여성보다 남성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들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터득하고 배울 수 있다. 업무에 있어서는 빠르고 결단력 있는 남성성을 추구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외모에서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업무를 처리할 때는 남성적인 추진력과 스피드, 여성 특유의 꼼꼼함으로 완성도를 높이되 차림새와 행동에 있어서는 여성의 우아함과 당당함을 반드시 챙기도록. 완벽한 실력과 추진력을 갖춘 세련된 동양 여성,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전략이다.¹⁾

위의 인용문은 여성에게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요구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진력을 갖추면서도 꼼꼼한 이미지, ‘동양 여성’이라는 대상화된 모델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의 나는 위의 구절에 감화되어 심지어 다이어리에 메모까지 해놓았다! 위의 내용을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일 만큼 젠더 역할에 관해 사회 분위기는 공고했으며, 나는 거기에 무뎠던 것이다. 몇 년 뒤에 나는 내 다이어리에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는 말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다.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 스크랩한 내용이라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지금은 이 내용을 옮겨 적었던 나 자신의 사고구조가 1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적어도 20대 초반의 나에게겐 이러한 내용이 너무도 당연했다.

“남녀평등, 그거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아니야?”

명예 남성이라는 달콤한 지위에 숨어 편안한 일상에 취해가고 있던 때, 오래도록 잠자던 내 페미니즘의 촉수를 깨운 사건이 있었다. 20대 초반에 사귀던 애인과의 토론이었다. ‘남녀평등’을 주제로 한 뻘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화가 어느 화제로부터 시작된 건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가 “남녀평등은 수 십 년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 더 이상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 받는 건 아무것도 없지. 남녀평등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이 또렷이 기억이 난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명백하게 틀린 말인데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당황스럽고 억울했다. 남녀평등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나도 수없이 겪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애인 앞에서 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당시 내겐 언어가 부재했다. 내 몸은 이미 남성의 언어만을 체화하고 있었다. 여성으로서 살면서 무엇을 느꼈고, 어떤 것이 불편했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라고 언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했다. 어떤 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의식적으로 생각을 비우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나는 이 사회가 행하는 내면화 작업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지를 실감했다. 나는 내 몸에 각인된 차별의 흔적을 지우고, 경쟁의 선두 대열에 서기 위해 차별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왔던 것이다. 흔히 ‘여성’으로 상징되는 패자 남성, 힘이 약한 이들, 낙오자들의 우위에 서기 위해 그들을

1) 김영희. 2010. 『20대, 세계무대에 너를 세워라』. 동아일보사.

밟고 일어서 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 세월 속에서 내 안의 여성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다. 그러나 엄연히 남성도 아니었다. 무늬만 그럴싸한 명예 남성이었다. 나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흑독한 가해자이기도 했다. 뼈아픈 자각이었다.

그 날 애인의 말에 당장 응수할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피해자성은 물론 가해자성까지 지닌 이중적인 자신에 대한 성찰과 동시에, 이런 모습의 나를 만들어 낸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그러니까 젠더로서의 여성-라는 자각을 이 때 처음 해 본 것 같다. 시스젠더로서 거듭난 순간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것을 굳이 의식하며 살 일이 없었다. 여성으로 살아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있어도 모른다고 짐짓 누르며 응수해왔던 시간들이 스쳐지나갔다. 학생 때 교실에서, 길거리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에게 당한 성추행이 떠올랐고,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책이나 영화의 내용이 떠올랐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작품인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나만 이상한가 하고 이내 생각을 접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불편했던 이유

살면서 한 번도 여성이라서 소외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소외를 느낀 경험은 당연하게도 존재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예를 들어보자. 이 영화는 명문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낭만, 꿈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 호평을 받았다. 비밀 조직을 만들어 학교의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소년들의 모습은 꿈 많은 못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굵직굵직한 중심 스토리와는 달리,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으나 내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영화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대상화’되고 중심 스토리에서 배제된다. ‘캡틴’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 남자들만의 전우애나 소년들 사이의 우정은 칭송되지만, 여자는 이 과정에서 남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장식품처럼 등장한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비밀 클럽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모이지만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시를 짓지 않고, 지적인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그녀들은 그저 이렇게 묻기만 한다. “너희들은 여자를 위한 적이 없니?” 하나같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그려진 여성 캐릭터의 모습은 보는 나까지 무력하게 만든다.

물론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그 메시지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우연히’ 남성이 주인공일 뿐이며, 따라서 여성의 대상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이 대다수일 경우, 우연은 보편이 되고 대상화는 기정사실이 된다. 이런 작품을 접할 때마다 나는 이 사회의 ‘보편적 주체’에서 배제된 것 같

은 소외감을 느낀다. 나도 <죽은 시인의 사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젠더중립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우연히’도 남자주인공이 많은 시대에, 나는 ‘우연히도’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자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릴 때 봤던 <죽은 시인의 사회>를 대학교에 들어와 다시 보면서 나는 이 알 수 없는 불편함에 대해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엔 남성들만의 리그가 이토록 공고하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여성은 ‘제2의 성’이라는 보부아르의 외침이 점점 더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다.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페미니즘은 하나의 렌즈와도 같다. 마치 개안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한다.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를 낀 이후엔 그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에 겪었던 일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과 직접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은 달랐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건 쉽게 말해 동시에 ‘수많은 적’이 생기는 것이었다. 남자, 강자, 연장자, 권력자, 아버지, 선생님, 애인, 친구, 선배... 수시로 권위에 반항해야 했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질서에 의문을 제기해야 했다. 페미니즘은 머릿속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의 영역이므로, 일상 전체가 투쟁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正體化, identification)한다는 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알베르 카뮈의 말을 빌리자면,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반항”이 되는 것이었다.

한편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고정적인 이미지의 ‘무언가로’ 규정하고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두려웠다. 짧은 커트머리를 하고 줄담배를 피우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다리털을 면도하지 않는 젊은 여자. 혹은 비혼을 외치며 밤마다 여성주의 칼럼을 쓰는 고답적인 ‘여교수’의 모습이라든지. 20대 초반의 나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이미지를 피해야함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다. 조직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었고, 또 이성애자로서 남자들에게 사랑 받는 여자이고 싶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로서는 불가능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은 가장 인기 없는 사상이었고, 페미니스트는 인기 없는 여성들의 집합소처럼 간주되었으므로.

따라서 페미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면서도,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나는 페미니스트와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구분하고 싶어 했다. 어떻게든 낙인을 피하고

싶었다. 과거의 나에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인기를 얻는 게 더 중요했다. ‘보통 여성’도 아니지만 ‘페미니스트’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회색 지대에 위치하는 것은 중요했다. 구태의연한 여성성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도 않지만, 피해의식에 휩싸여있는 예민한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이러한 중간 지대가 우리 사회 여성으로서는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가 페미니스트임을 시인(?)하게 되었는데, 이는 고작 몇 년 전의 일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듯 2015년 강남역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양적으로 성장한 페미니즘 운동의 시류에 편승한 측면도 크다. 이때를 계기로 페미니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주변에 하나둘씩 늘어났고,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는 게 껄끄럽지 않은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분위기는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나의 페미니즘 선언은 대학원 입학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 나는 2016년 가을에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고, 그 무렵 연구 주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학문적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했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연구의 관점 설정조차 불가능하다.

대학원 전공으로 국제정치학을 택하긴 했지만, 사실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큰 애정은 없었다. 힘의 추구와 폭력의 작동을 본질화하는 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편견이 깊었던 탓이다. 국가를 행위자로 보고 거시적인 정책을 분석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정작 그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는 놓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면, ‘남성들 모임’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남성 학자들로만 가득한 주류 국제정치학회의 단체사진 같은 모습이 연상됐다. 서구, 백인, 남성과 같은 기득권 영역이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영역인 국제정치학, 그리고 국제정치학계에 대해 왠지 모를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꼬트머리에 위태롭게 매달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입학 전 독학으로 국제정치 이론 공부를 하던 중 처음으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을 접했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남성 위주의 국제질서를 의문시하며 ‘여성은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는 당돌한 학파였다. 거시적인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여성의 위치성을 의문시하는 이 학문은 단숨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학원 입학 후 관련 주제에 더욱 깊게 천착하기 시작했다. 안 티크너, 질 스티스, 신시아 인로, 니라 유발-데이비스 등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책을 두루 섭렵하며 이 세계가 어떻게 젠더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갔다. 비록 국제정치학계

에서도 마이너한 분과이긴 하지만, 이미 30년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비로소 ‘국제정치학, 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조금은 엉뚱하게도, 페미니즘과는 가장 거리가 있어 보였던 국제정치에 대한 공부를 경유해 페미니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한반도 분단과 섹슈얼리티

이제부터는 내 지적 여정에 더 깊이 초대하려고 한다. 지난 몇 년 간, 한반도와 젠더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나갔는지 살펴보면서 두 가지 화두를 함께 논해보고자 한다.

나는 학부에서 북한학을 전공했다. 자연스레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학부 졸업 후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에 입학해서도, 나는 정통 국제정치학보다는 조금 뼈뺀 비판적 국제정치이론, 그중에서도 페미니스트 국제정치 이론과 젠더 연구에 이끌렸다. 비주류의 영역에 자석처럼 끌리는 이 성질은 어디 가지 않는 건가 싶었다. 석사 초기부터 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해 내 안에서 쏟아지는 궁금증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누구도 찾지 않을 것 같은 도서관의 보존 서고에서 여성주의 국제정치 관련 책들을 잔뜩 빌려 한 쪽 팔에 가득 안고 집에 돌아갈 때면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순간 재미있는 사실을 깨달았다. 북한, 통일(분단) 관련 연구와 젠더 연구의 ‘중간 지점’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학부 때부터 흔히 접했던 북한, 통일 연구에는 젠더 감수성을 담은 책이나 논문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학 분야에서는 분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두 관점을 흥미롭게 접목시킨 선구자적인 학자들의 일부 연구²⁾를 제외하면 이 둘을 접목시키는 시도는 아직 부족했다. 문득 이러한 사각지대를 한 번 파고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문제와 젠더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탄생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해보였다. 우선 나는 한반도 분단을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해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캐서린 문의 <동맹 속의 섹스>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 책은 한국 내 기지촌 문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기지촌 여성이라는 ‘저위정치’와 한미동맹이라는 ‘고위정치’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했는지를 다뤘다. 1970년대 초반 닉슨 독트린 이후 박정희 정권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해 ‘기지촌 정화 사업’을 벌였다. 기지촌 여성

2) 정현백, 김석향, 조영주, 박영자, 김성경 등.

들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놓여야 했고, 미군에게 더 나은 정주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기지촌 여성들은 그저 국제정치적 변화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항했다. 국가 권력이 어떻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활용하는지를 고발하는지를 넘어서, 그 안에서 거꾸로 여성들의 행위자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균형적 시각을 견지했다.

캐서린 문의 연구는 가장 소외받는 여성들의 존재를 국제정치의 주 무대에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국제정치 연구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분단국 섹슈얼리티’라는 내 안의 화두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기지촌 여성 문제는 분단국가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착취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단된 사회가 어떻게 뿌리 깊게 젠더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생각했다. 분단 이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기지촌 문제는 분단과 젠더 모순이 응집된 지점이다.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암암리에 적극 지원하고 장려해 온 것이 바로 미군 기지촌이기 때문이다.

일제에 의해 처음 시작된 조선의 공창제도는 이승만 정권 수립 후 폐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경우 예외 조항을 두어 미군이 출입하는 클럽의 특혜를 허용했고, 산업화 시기에는 일본인 대상 기생 관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 국가는 이러한 성판매 여성들을 “애국자”, “외화벌이 역군”으로 칭송하면서도, 실제로는 돈벌이 수단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뿐 여성들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혐오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정치군사력을 높이고, 외화를 확보해 경제력의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 분단국 남한의 선택이었다. 즉,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남한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도구로 전략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 20세기의 유물이 아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지촌 클럽은 필리핀, 러시아 등지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채우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암묵적으로 ‘엔터테이너’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내국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다. 국가에 의한 여성 섹슈얼리티 착취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탐구한 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젠더 문제의 기원을 더욱 심도 있게 추적하고 싶었다. 몇 년 사이 한국 사회에서 불거진 소위 ‘남녀갈등’은 어

디에서 기인한 걸까?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제도와 문화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군대가 아닐까?

나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한국의 대학 사회는 군 입대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남성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가 살짝 어긋나게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젠더 구조에 군대라는 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막강하다. 우선 갓 입학한 신입생 후배들과 군대에 다녀온 복학생 ‘오빠’들 사이에는 성별/나이 위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2학년에 접어들면, 군대에 간 남자 동기들과 여자 동기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차가 형성된다. 단순히 시간적 문제가 아니라, 2년간 서로 다른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되는 경험은 남녀 사이의 크나큰 인식 격차를 낳는다. 남자들은 군대라는 남성만의 커뮤니티에 속하게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동성사회성을 공고화한다. 군의 통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타자화를 익힌다. 삶 자체가 폭력으로 촘촘히 엮이게 되므로, 이 속에서 점점 폭력 자체에 무뎠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다. 이들이 전역하고 나와서 또 다시 ‘복학생’이 되고, 종종 군대에서 배운 질서를 대학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선 대학이라는 하나의 축소판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대학이라는 제한된 공동체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군대가 미치는 영향력은 거대하다. 한국에서 군복무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막강한가? 징병제는 언제부터 정착된 걸까? 군 제도는 어떻게 정당화되고 하나의 문화가 되었나?

사유의 출발점은 돌고 돌아 한국전쟁이었다. 전쟁은 남녀 젠더의 ‘기능’을 분명하게 갈라놓는 계기였다.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는 백골부대에서 싸우다 왼쪽 다리에 총을 맞아 상이군인이 되었다. 아군의 포탄에 동생을 잃은 사연, 변변한 수술기구나 마취제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던 야전병원의 비참한 광경, 생과 사의 거리가 1cm도 되지 않던 총알 싸움까지. 60년이 지나도 전쟁의 아픔은 몸과 마음에서 지워질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까?

이러한 차이는 근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구분선을 만들었다. 전쟁을 겪은 이와 아닌 이. 전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전방과 후방. 지키는 자와 보호받는 자. 남자와 여자. 전쟁은 이처럼 남녀라는 젠더 간 이분법적 차이가 극대화되는 시기다. 정전 이후에도 군대는 계속해서 사람을 필요로 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를 항시적인 ‘전시(戰時) 사회’로 몰아넣었다. ‘국민개병제’라는 이름하에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가야 했다. 군대는 군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다. 국가는 제대한 군인들에게 당근을 제공해야 했고, 1999년까지 유지된 ‘군 가산점제’가 그 중 하나였다.

군 가산점제를 통해 남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이에 반해 군사 공동체의 외부자인 여성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을 자연스럽게 주류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밀어내고 결혼 제도로 유인·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근대 가족 모델’의 전형이다. ‘능력 있는 가장’과 ‘현명하고 알뜰한 주부’라는 이상적 남성성/여성성은 이처럼 군사주의적 구조와 결합하여 탄생했다³⁾.

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리적 섹슈얼리티 문제 또한 이러한 분단과 군사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 대한민국은 성매매 산업 규모가 세계 6위를 차지할 만큼 여성 섹슈얼리티의 산업적 착취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군대, 학교, 직장 등에서 남성성을 과시하고 동성사회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구매로의 유입은 일상적이다. 내국인을 위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으나, 기지촌 성매매는 국가의 관리 하에 버젓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산업 카르텔은 공고화했고, 봐주기 문화가 확산되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남성들 사이의 연대감은 성별과 금전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남성적 권력을 서로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60년대 베트남 전쟁에의 한국군 파병은 냉전 하 정치적 계산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의 분단 사회와 또 다른 분단 사회의 폭력의 고리가 어떻게 이어져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한국군들이 현지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폭력은 악명 높다. 파병에서 돌아온 남성들은 술자리에서 베트남 여성을 가리키는 은어를 사용하며 여성 혐오적 기업 접대 문화를 주도했다.⁴⁾ 이처럼 전쟁과 폭력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남성에게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부여했고, 아직까지 비정상적 정전체제가 계속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올수록 여성에 대한 착취는 오히려 일상 속 군사주의라는 흐름을 타고 더욱 교묘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은 폭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폭력의 사슬의 말단에는 언제나 여성과 약자가 있다.

북한과 한국전쟁⁵⁾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땠을까? 한반도의 젠더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분단 후 군사주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유사한 젠더 구조가 나타났을까? 여기서부터

3) 문승숙. 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또 하나의 문화.

4) 이태주. 2000. 「파월장병의 전쟁 담론과 군사문화의 일상화」,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5) 이 챕터의 내용은 필자의 석사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이다. 출고. 2018. “Gender Politics in Cold War North Korea: War, Militarization and Gender Reconstr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MA dissertation. Waseda University.

내 석사 논문의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과 북의 젠더 구조는 해방공간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다시 유사성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북한에선 정권 수립 전부터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진지하게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적,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남한과는 출발 양상이 다르다. 1945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1948년 남북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까지 한반도 북쪽에서는 여성 해방에 대한 물결이 일어났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7월 30일, 일찍이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에는 당시 실정으로서는 꽤 급진적인 내용의 조항들이 담겼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6)6년동안 조선여성들은 일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모욕과 잔혹한 착취를 받았다. 그들은 어떠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중세기적인 봉건적가정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더하게 하였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문명에서 헤매는것이 조선근로여성대중의 운명이였다.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지위는 달라졌다. 북조선에서 진행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은 여성들을 과거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가정 생활의 불평등으로부터 해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일제식민지정책의 잔재를 숙청하고 낡은 봉건적남녀간의 관계를 개혁하며 여성들로 하여금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6) 리경혜. 1990. 『여성문제 해결경험』. 사회과학출판사, pp. 53-4.

제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리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리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 결혼년령은 여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이상으로 규정한다.

제7조 중세기적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여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여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 제도(기생권번,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8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리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본 법령의 발표와 동시에 조선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특히 2조, 4조, 5조, 8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들에서는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정치적 선거권은 물론 자유 결혼·이혼 권리,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법의 폐지와 토지개혁법, 노동법의 채택 등을 통해 기존 봉건 가부장제의 잔재를 없애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조치들에 대해 <조선여성>에서는 남조선과 대비되는 공화국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해 나날이 선전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원칙과 출산·육아 휴가 등의 뒷받침과 함께, 1946년에서 1948년 사이 북한에서는 여성 노동력이 188.8퍼센트나 증가했다.

<표 1> 여성 노동자의 수(1947년 2월 기준)⁷⁾

부문	인원수(명)
방직, 섬유 부문	6,969
화학공장	4,109
광산	2,098
토건	1,246
철도	857
통신	763
금속, 식료, 전기, 출판	7,231
학교, 문화기관, 병원	3,932
정당, 사회단체, 은행, 사무원	4,618
계	31,818

7) 위의 책, pp. 60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전쟁은 북한 정권 초기에 불어오던 ‘여성 해방’의 바람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한국전쟁의 영향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쟁은 북한 여성들에게 양날의 칼이었다. 전쟁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일시적으로 촉진시키기도 했다. 전쟁은 대규모의 ‘남성 공백 사회’를 만든다.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간 동안 여성들이 그 공백을 채워야했다. 공장이나 농업 지대 등에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담당하던 중노동 역할까지도 여성들이 담당할 것을 장려했다.

이는 겉으로는 고무적인 현상처럼 보인다.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뛰어넘어 광범위한 노동 참여를 여성들에게 독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시 북한 정권은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동원한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선에 나간 남편들과 오빠들과 아들딸들을 대신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일할 것을 주문한다. 이처럼 전쟁 중 여성들을 노동자로 적극 호명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임파워링(empowering) 효과보다는 결과적으로 가족공동체 질서의 내면화⁸⁾를 통해 가부장제의 틀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히려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여성이 두 가지를 모두 떠맡는 이중노동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소폭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전쟁 중 여성들이 “잠시 동안” 담당하던 역할을 그 본래 주인인, 전장에서 돌아온 남성들에게 되돌려준다는 방증이다⁹⁾.

<표 2> 북한 여성 노동력의 비율(%) (1948~1971)¹⁰⁾

연도	비율(%)	연도	비율(%)
1948	11.0	1958	29.9
1949	14.8	1959	-
1950	15.9	1960	34.0
1951	-	1961	32.4
1952	27.0	1962	35.0
1953	26.0	1963	36.7
1954~1955	-	1964	37.3
1956	20.0	1965~1970	-
1957	20.0	1971	53.7

8)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앨피, pp. 275.

9)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pp. 89.

10) 위의 책, 89; 2006,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 『북한의 여성과 가족』. 경인출판사, pp. 74-76.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는 한반도 남쪽보다 더 광범위하고 막대했다. 미군은 전쟁터와 민간 구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퍼부었다. 주로 후방 지역에 위치했던 군수공장이나 식량을 보급하기 위한 농경지들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지역 농가에서 여성 농민들이 무장을 한 채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언을 통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후방도 전선이다”라는 구호 하에 여성들은 일상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다¹¹⁾.

전후 북한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동아시아에서는 중소분쟁까지 겹쳐졌다. 이 상황 하에서 북한은 군사주의 노선을 제도화했다. 1962년에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의 채택과 함께 군사주의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4대 노선 중 하나가 “전인민의 무장화”로, 우리가 현재 북한 사회에서 목격하는 고도화된 군사국가의 밑그림이 이토록 이른 시기에 일찍이 완성되었다. 전장의 총포는 멈췄지만, 사회의 군사화는 더욱 가속화한 것이다. 남한에 군사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에 비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북한이 받는 지원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처럼 냉전과 분단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한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시했다.

‘초모(招募)제도’라고 불리는 북한 징병제는 군사문화와 성별 위계질서 정착의 핵심적인 기제가 되었다. 전쟁 이전까지 명목상 모병제였던 북한의 군복무 제도는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며 실질적인 징병제로 거듭났다.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공민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군사등록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징병 시스템이 마련되었다¹²⁾. 이러한 징병제는 복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남성들에게 정치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군사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제대 군인들은 여성들보다 좋은 직장, 높은 직무에 배치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당원증을 소지했거나 중공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은 식량 배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¹³⁾. 결국 군사와 정치, 경제의 밀접한 결탁을 통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제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전후 분단 체제 하에서 남과 북의 젠더 구조는 서로 공명했다.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과 북한의 1인 독재정권이 펼친 국가 주도의 가부장제는 제도적 디자인은 물론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까지 닮았다. 그 핵심에 있는 연관 고리는 바로 한국전쟁과 군사주의를 기반으로 한 ‘군대’였다.

11)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앨피, pp. 262-71.

12) 한성훈. 2012. 『전쟁과 인민』. 돌베개, pp. 73.

13) 조영주. 2013.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2), pp. 120-24.

탈북 여성, 남북 가부장제의 횡단적 증인

이번엔 화제를 조금 바꿔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북한이탈주민은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존재로, 두 사회를 넘나들면서 어느 곳에도 완벽하게 예속되지 않는 ‘경계인’이다¹⁴). 남쪽 또는 북쪽, 어느 한 쪽에만 머무르면서 다른 사회에 대한 월경(越境)과 상상조차 금지된 우리에게, 이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조망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남한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7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김성경(2015)은 이를 ‘젠더화된 탈북’이라고 정의한다. 공적 영역(직장)은 남성, 사적 영역(가정, 장마당)은 여성으로 분화된 북한의 젠더 구조 하에서, 여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이주(탈북)에 용이한 이동 조건을 갖게 되었다. 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기업소, 공장 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유명무실해진 작업반을 제일 먼저 이탈하게 된 것이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남편의 공식 임금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돈벌이가 되지 않지만 국가가 배치한 직장에 형식적으로라도 출근해야 하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각 지역과 국경을 오가면서 장사의 기반을 닦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즉, 북한 사회 내부의 공적 영역에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부여 받았던 여성들이, 경제난 이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역설적으로 이용해 국경 너머의 삶을 주체적으로 꿈꾸는 행위자로 거듭난 것이다¹⁵).

이처럼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경을 넘은 탈북 여성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다시 한 번 착취에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접경지대에 살던 조선족 여성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내륙의 대도시로, 혹은 남한으로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현지 여성이 주로 담당하던 저임금 서비스 산업의 공백을 채우는 건 탈북 여성의 몫이 된다¹⁶). 대도시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일도 흔하다. 또, 탈북 여성은 중국의 농촌 지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가정 구조에 정착하거나, 그 과정에서 많은 경우는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¹⁷).

14) 윤보영(2015)은 경계인 이론을 통해 남과 북 모두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각 문화의 가장자리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위치성을 고찰했다. 윤보영. 2015.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3).

15) Kim, Sung Kyung. 2014. “I am well-cooked food”: survival strategies of North Korean female border-crossers and possibilities for empowerment”, *Inter-Asia Cultural Studies*, 15(4).

16) 김성경(2012)은 “남한 여성들이 기피하는 ‘여성’의 직업을 조선족 여성이 채웠다면, 그 빈자리를 더 값싸고 어떤 부당한 대우도 감당할 수 있는 불법적 지위에 있는 여성, 즉 북한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다. 또, 논문은 10만에서 30만까지로 추정되는 중국내 탈북자들 중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북한 여성들이 남 한으로 떠난 조선족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성경. 2012. 「‘젠더’화된 ‘장소’로서의 북·중 경계지역: 북한이탈여성의 경험과 현상학적 인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201.

17) 조정아 외. 2010.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pp. 341.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또 다시 새로운 가부장제의 틀에 봉착한다. 간단한 예로써, 남한 미디어에서 이들을 재현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출연자로 등장시키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들은 종종 ‘탈북 미녀’라는 이름으로 상징되고, 남성 시청자들은 ‘예쁘고 순수한 북한 여성’으로 표상된 이들의 여성화된 이미지를 소비한다.

남한 내에 남과 북 결혼정보회사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들 회사의 광고에서는 탈북 여성들을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동원해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¹⁸⁾. 요즘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남남북녀’라는 말에는 미지의 존재이자 적대적 대상이기도 한 ‘북한’을 여성화된 존재로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탈북 여성에 대한 수동적인 재현 방식에서는 남성인 주체(남한)가 이들 여성(북한)을 ‘정복’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남성주의적 메타포가 담겨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민족 모순과 젠더 문제는 남한 사회가 북한 이탈주민을 재현하는 방식에 응축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남과 북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반도 가부장제의 횡단적 증인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에서 북중 접경지역을 거쳐, 또 다시 남한의 가부장적 사회로 건너오며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 전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살아간다. 이처럼 한반도의 가부장제, 더 넓게는 동아시아의 가부장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탈북 여성들이 있다.

한반도 여성성, 분단국 여성성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오자. 그렇다면 여성성이란 무엇일까? 여성성(女性性)의 사전적 정의는 ‘여자의 본성이나 본바탕’이다¹⁹⁾. 영어로는 femininity, ‘여성다움’ 혹은 ‘여성의 자질’로 번역된다. 이처럼 여성성이란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뜨겁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수렴된 바가 없다. 무엇이 여성성이고 남성성인가? 둘은 흔히 배타적인 개념처럼 간주되며, 고정적이고 본질화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남성성은 흔히 강함, 듬직함, 거침 등으로 묘사되고 여성성은 여림, 꼼꼼함, 다정다감함 등의 특성이 연상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여자다움 또는 남자다움으로 보는지는 시대별로, 그리고 사회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를테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생산직 노동보단 지식 노동이 경제력과 직결됨에 따라, 세련되고 도회적인 이미지나 섬세함 등이 바람직한 남성성의 요건에 추가되는 식이다.

18) 박순성 외. 2010.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pp. 119.

19) 출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젠더를 끊임없이 ‘수행되는 것’으로 보는 주디스 버틀러의 관점에 따르면, 남성성과 여성성은 범주와 규범일 뿐 구체적인 실재는 없다.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성성/여성성을 어떻게 보는지, 젠더 인식이 어떠한지는 그 사회의 구조와 특성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앞의 글에서는 ‘식민지 남성성’의 개념을 차용해 ‘분단국 남성성’에 대해 정의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 글에서는 한반도 여성성 혹은 분단국 여성성에 대해서 사유해보고자 한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손바닥의 양면과도 같아서, 여성성은 남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앞의 글에서는 분단국 남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을 도구화, 성상품화하는 것이며, 남성성의 정치는 평화나 안보 같은 거시적인 ‘민족’의 과업을 위해 여성 문제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보면, 분단국 여성성이란 끊임없이 타자화·비체화되며,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성차별, 젠더 폭력과 같은 화두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며, 언제나 순위 밖의 문제로 밀려나게 된다. 과거 화제가 되었던 진보 지식인의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는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식민지 남성성의 구조를 이용해 분단국 남성성을 고찰한 앞의 글에 이어서, 분단국 여성성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성이 ‘보편적 주체’로 국가를 자처하며 대변할 때, 여성은 ‘민족’으로 표상되고 대상화되어 국가(남성)의 승리를 ‘보조’하는 역할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 (2) 외부의 타자(북한/남한)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한(다시 말해 온전한 승자도 패자도 아닌) 한반도 남성들의 만성적 열등감을 고스란히 꺼안아야 하는 운명에 처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중의 타자로 전락한다.
- (3) 민주주의, 통일과 같은 정치적인 과업은 남성이 이루는 것으로 여기고 수동적으로 관망하는 위치에 만족한다. ‘진지한’ 임무를 담당하는 남성의 지위를 추켜 세워주며, 이를 방해하는 목소리는 내지 않는다.
- (4) 무거운 정치, 군사 분야와는 반대되는 소프트한 분야(이를테면 사회, 문화)가 여성의 몫이라고 여긴다. 학계나 시민사회계, 분야를 막론하고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세미나에서 정치경제, 군사 세션엔 주로 남성 학자들이 포진했다가, 말랑말랑한 주제를 다루는 사회문화 세션에는 여성 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5) 승자남성을 선망하며, 패자남성은 무시한다. 이는 여성의 여성혐오의 양상과도 유사하다. 여성혐오를 내면화한 여성들은 패자남성에 대해서 여성혐오적 시선을 투영한다. 남성 커뮤니티에서 도태된 남자, 군대에 가지 않은 남자, 힘이 약한 남자에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이미 여성혐오의 표적이 되는 여성들은 패자남성과 엮이는 일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미 본인이 실존적 여성인데다가, ‘여성화’된

남성들과 어울리게 되면 더욱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며, 존재양식이 더욱 위태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 (6) 불합리한 젠더 구조가 당장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면서도 끈질기게 인내한다. 성차별적 상황이 부조리해도 일단 참는다. 지금은 더 복잡한 문제(안보, 평화, 통일)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걸 안다. 따라서 분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성차별과 같은 가부장제 모순은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잠자코 받아들인다.
- (7) 여성혐오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남성중심주의가 만들어낸 성녀/창녀 이분법을 깊이 내면화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혐오하고 이들과 자신을 뚜렷하게 구분 지으며, '성녀'의 범주에 머무르기 위해 노력한다.
- (8) 추가적으로, 북한에서는 경제난 이후 여성들이 장마당으로, 중국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선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경제적인 강박까지 여성성의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성성은 이 사회의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나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분단국 여성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시대의 '여성성'과 공통되는 부분도 많으며, 반드시 분단국이기에 때문에 배타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구성되고 주어진 것이며,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하지 않는 등의 이분법적인 문제로 볼 수 없다. 한반도의 모든 여성들이 이와 같은 규범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에선 저항과 충돌, 그리고 전복적 활용 등 다양한 양태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단국 여성성은 남북 대치상태에만 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나 군사적 대결 상황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발현되긴 하나, 남북대화가 가속화하는 화해무드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남북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지도자인 남편을 곁에서 살뜰히 보좌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정상적인 것', '바람직한 것'으로 추앙받는다. 남자들이 정치적 협상을 하는 동안, 영부인들은 영재 학교와 산모 병원을 시찰하고 문화 공연을 관람한다. 미디어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내는 정상적인 이성에 부부의 모습을 시시각각 비춰준다. 이 과정에서 '정상(頂上)부부'는 곧 '정상(正常)부부'로, 또 다시 '정상(正常)국가'로 거듭난다²⁰⁾. 아내를 두고 있으며, 영부인과 함께 정상회의 의전에 참석할 수 있는 지도자, 즉 젠더 규범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남자'라는 것을 증명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것이다²¹⁾. 이와 같은 상황은 모두 한반도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얼마나 정치화되어있는지, 젠더가 분단국 정치문화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0)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1) Draudt, Darcie. 2017. "Modern Representation and the Ideal Woman in Kim Jong-Un's First Year" In Cathcart, Adam, Winstanley-Chesters, Robert and Green, Christopher K. (Eds.), Change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n Politics (pp. 39-52). Taylor & Francis.

대결 상태든 평화를 향한 과정이든,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논외가 되며,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또한 한참 뒤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잘 말해준다. 그간 통일 담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주변으로 밀려난 것도, 평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가 널리 확산되지 못한 것도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 한반도 내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젠더 퀴어들을 모두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법적 굴레에 가두어 겹겹이 억압하고 있는 분단 구조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기존 젠더 구조를 뒤엎기란 쉽지 않다. 탈분단 페미니즘의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탈분단 페미니즘의 가능성

탈분단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면 다소 거창하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분단 극복과 함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성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탈분단으로서의 통일은 반드시 젠더 구조에 대한 성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 70년이 넘는 동안 축적된 젠더 모순은 통일 과정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다. 남북 여성 사이에 적지 않은 격차와 균열이 생기면서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통일 이후 수많은 동독 여성들이 ‘2등 시민’으로 전락했던 현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²²⁾.

급변하는 한반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여성과 여성이 어떻게 새로운 관계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파워 게임이 아니어야 하며, 한 쪽이 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구성되어 온 분단국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처절한 고찰은 물론, 지속적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중시하며 주변적 남성성을 패자로 빚어내고, 한편으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착취를 당연시해왔던 국가 가부장제에 대한 처절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만연한 분단/젠더 이분법의 해소가 절실하다. 통일을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담론이라며 배척해왔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와 평화의 감수성을 담은 통일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 문제는 사소하다고 치부했던 주류 정치학자들은 페미니즘적 사유를 포용하는 통일 담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는 더 많은 탈분단 페미니스트가 필요하다. 분단 극복과 젠더 문제 해결을 함께 엮어서 바라볼 수 있는 참신한 눈빛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22) 사빈 케르젤, 「독일 여성들이 잃어버린 것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0호, 2015.04.30.

참고 문헌

- 김성경. 2012. 「젠더화된 ‘장소’로서의 북·중 경계지역: 북한이탈여성의 경험과 현상학적 인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김영희. 2010. 『20대, 세계무대에 너를 세워라』. 동아일보사.
- 리경혜. 1990. 『여성문제 해결경험』. 사회과학출판사.
- 문승숙. 2007.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국민 만들기, 시민 되기, 그리고 성의 정치』. 또 하나의 문화.
- 박순성 외. 2010.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원위원회 북한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박영자. 2017.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앨피.
- 사빈 케르젤. 「독일 여성들이 잃어버린 것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0호, 2015.04.30.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 윤보영. 2015. 「경계인 이론을 통한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 이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3).
- 이태주. 2000. 「파월장병의 전쟁 담론과 군사문화의 일상화」, 『동아시아의 전쟁과 사회』. 한울.
- 조영주. 2013.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2).
- 조정아 외. 2010.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한성훈. 2012. 『전쟁과 인민』. 돌베개.
- Draudt, Darcie. 2017. "Modern Representation and the Ideal Woman in Kim Jong-Un's First Year" In Cathcart, Adam, Winstanley-Chesters, Robert and Green, Christopher K. (Eds.), Change and Continuity in North Korean Politics (pp. 39-52). Taylor & Francis.
- Kim, Sung Kyung. 2014. "“I am well-cooked food”: survival strategies of North Korean female border-crossers and possibilities for empowerment“, Inter-Asia Cultural Studies, 15(4).
- Choi, Suji. 2018. "Gender Politics in Cold War North Korea: War, Militarization and Gender Reconstr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MA dissertation. Waseda University.

한반도 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동학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박영민

들어가며, 나만 빼놓고 가지마

덧붙여야 할 말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의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대한 논의는 활발했다. 보수정권의 몰락, 민주주의, 헌법, 적폐, 촛불시민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긴 시간 누적되어온 부패한 정치를 도려내는 일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그럼에도 이다음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시간이었다. 평화적 시위로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것, 몇 개월에 걸쳐 추운 겨울에도 수십만의 시민이 광장을 지켰다는 것,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것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칭찬을 쏟아냈고 시민들 역시 자신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저항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던 기간 동안 나는 줄곧 석연치 않은 마음이었다. 당시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에 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면 하나, 여성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있더라.

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페미니스트들의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떤 맥락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차별일 수도, 어떤 맥락에서는 그가 여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마치 젠더중립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차별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여성을 마주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다.

물론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맥락’에서 여성이 튀어나왔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앞세워 대선을 치룬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여성주의적 가치 실현,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하다못해 피상적인 여성정책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2012년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 민망할 정도로 새누리당의 그간의 행보는 여성차별과 혐오로 가득했으니 말이다.

일례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탐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동영상을 발표했는데, 이 동영상에는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 다음으로 싫어해요’, ‘여자가 아는 것은 쥐뿔도 없어요’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을 샀다.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바퀴벌레 다음으로 뉴스를 싫어’하고 ‘아는 게 쥐뿔도 없는’ 여성이 열심히 ‘준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일종의 성공신화의 서막으로 봐야 할까. 어쩌면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속뜻은 (우리(남자)가) 준비한 여성대통령에 가깝지 않을까.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은 한 당원 행사에서 ‘여성대통령’은 국민들의 혐오의 대상이 된 부패한 정치를 쇠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일삼았던 남성들에 비해 “깨끗하게 살아 온” 여성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남성으로 호명되지 않았던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남성으로 호명하며 과거 정치의 실패를 남성의 실패로 귀결시킨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주장이 흥미롭게 들리지만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조작 의혹부터 시작해 세월호와 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끔찍한 국가폭력, 국정교과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테러방지법과 사드배치 등 남성 못지않게(?) 무능과 불통을 임기 내내 보여주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보수진영 전체가 흔들리던 와중 정운호 대표의 불법도박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이 쏘아 올린 공은 ‘비선실세’가 되어 날아왔고 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분노로 가득 찼고 그것을 광장에 쏟아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준비는 미흡했다? 남성이 하나 여성이 하나 정치는 다 거기서 거기다?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 주변이 문제다? ‘비선실세’의 존재를 다 알고도 박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광장의 분노는 젠더회로를 거쳤다(김홍미리, 2017: 138).

특정 진영의 문제는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자들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연약함을 들먹이며 ‘(약자인)여자에게 적당히 해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은 ‘닭근혜 병신년’을 소리치며 여성의 나체를 전시했다. 박근혜-최순실-정유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들먹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내시환관당으로 묘사한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황교안 전 총리가 ‘여성화’된 이미지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인물의 실제 성(性)이 무엇이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 전 대통령의 실패를 여성의 실패로 부르고 싶어하는 이들과 ‘저잣거리 아녀자’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농락했다는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사이의 관계를 비정상적 섹슈얼리티로 풀어내려는 사람들까지 여성의 이미지와 섹슈얼리티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과 비남성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박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탄핵이 되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성(性)을 부정하거나 정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는 분명 꾸준히 여성이었는데, 그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한 때는 부패한 정치를 끝장낼 깨끗함으로, 한 때는 적폐와 비정상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황교안, 그리고 새누리당에 소속된 많은 남성들 역시 그들이 고수하고 있던 성(性)과 무관하게 여성화되고 비남성인 이미지로 비난 받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비판하는 이들은 박근혜 지지자로 몰리기도 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깨달은 것은 아니다. 당시 여성혐오적 가사로 촛불집회 무대에 오르지 못한 DJ DOC의 멤버인 가수 이하늘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페미니스트'를 가지고 농담을 할 정도로 아직도 그 때의 논란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더러운 잠' 전시 당시 일조했던 표창원 의원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당신은) 동성애자시냐는 질문을 할 만큼 장성한 호모포비아로 성장했다.

장면 둘, 나의 존재를 지우는 대통령의 나라에는 누가 살까?

촛불집회 기간의 석연치 않은 마음은 석연치 않게 끝난 것이 다행이었다. '널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라는 가사가 심금을 울릴 정도로 촛불 이후는 암담했다. 쿨하지 못한 말이지만 승리로 가득 찬 사회였기에 더 암담했다. 나만 빼놓고 축제를 벌인 이들 때문에 암담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의제의 여성운동과 촛불집회 때의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의식하듯 대선 후보들은 여성정책에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문재인 당시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넘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뭐가 암담했냐 질문할 수 있겠다. 당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무려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당신이 축제에 초대되지 못했다고 여길 것은 또 뭐냐, 할 수도 있겠다.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이슈가 된 것처럼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여러 페미니즘들feminism's'이 있다는 말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사람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여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정말...선언하면 그러니까 선언'만' 하면 다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반대합니다'. 대선 기간 중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문장이었다. 2008년 총선에 출마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 최현숙씨는 당시 <일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찬/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번 총선 이후에 '동성애자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바뀔 것이라고. 이것은 분명 성소수자 인권의 진전이고, 사회인식의 발전이라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최현숙씨의 출마 이후 사회는 퇴보했다. 우리는 다시 동성애를 찬/반으로 몰아넣고 대선후보라는 작자들은 그 망언을 토론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쏟아냈다. 페미니스트로 선언을 하지 말든가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대놓고 말하지 말든가. 아무 고민이 없는 것이 보였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은 저항을 위해 외쳤던 페미니스트 선언을 아무 고민없이 할 수 있었던 그의 권력에 화가 났다. 좌파에게 씌워졌던 오랜 '종북혐의'를 동성애 반대로 해체하고 특전사의 모습을 한 문재인은 이 나라를 안보를 수호할 능름한 남성이 되었다.

몇 해전 국립국어원이 ‘페미니스트’의 뜻을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이라고 정의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아마 문재인 당시 후보는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정의를 보고 페미니스트로 거듭났고 아직까지 업데이트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끓 만큼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임을 홍보했다. 다른 한쪽의 후보는 소위 ‘돼지발정제’ 이미지로 고심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는 그의 부인인 김정숙씨와의 로맨틱한 연애서사를 앞세워 그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가정(국가)의 평화를 저해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충실한 이성애자 남편의 이미지가 탄생한 것이다. 여자에게 친절하기만 하면 페미니스트 인줄 알았던 그에게 ‘여성이자 레즈비언인 나의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라고 울부짖는 어느 여성의 외침은 분명 의외의 것이었을 테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했다고는 했지만 준비된 여성대통령 출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가 없었던 것처럼 그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진 않았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분노로, 그리고 암담함으로 이어진 것은 ‘그’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에게 패자부활절의 기회를 준 촛불집회에게 걸었던 기대 때문이었다. 겨우내 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길래 그들의 민주주의의 민(民) 안에 내 자리도 있을까 싶었다. 만일 그들의 민(民) 안에 내가 있다면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당시 후보도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눈을 주변으로 돌렸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문을 던졌다. 이대로 가도 괜찮겠냐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촛불집회에 대한) 지분을 운운하지 말라는 식이거나 “달님”의 앞길에 재를 뿌리지 말라는 식이었다. 진보진영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너희 때문에 날리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걱정인 양 던진 협박들도 있었다. 진보의 표심을 분열하지 말라, 단호히 주장했던 이들도 있었다. 방금까지 나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촛불을 내려놓고 비난의 화살을 들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나를 향했다.

장면 셋, 정상(正常)이 된 것을 환영해서 정상회담인 것은 아닐 텐데.

대선기간이 끝나고 나라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재정비를 맞춘 나라를 앞으로 향했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양측 정상 부부가 함께 있는 장면은 화제가 되었다. 특히 공식석상에 부인을 대동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리설주 여사를 등장시킨 것은 정상국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문재인-김정숙 부부, 김정은-리설주 부부의 모습이 흡사 부모와 자식 같았다는 평이 잇달았고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내외의 안정적인 그림이 연출되었다고 여겨졌다. 정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쇼맨십으로 부인과의 대동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의혹을 던지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이성애자로서의 면모를 펼치는 것이 정상국가의 정상으로서 첫번째 단계였을까.

북한 지도자의 ‘여자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여러 명의 부인과 소위 ‘기쁨조’ 담론이 그간의 북한 지도자의 섹슈얼리티 논의할 때 제기된 내용이었다. 기쁨조는 지도자의 쾌락을 위해 조직된 것으로 궁녀, 기생, 창녀, 노예 등의 이미지가 뒤섞인 집단으로 북한 지도자의 비정상적 섹슈얼리티를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대상이 된다. 북한 지도자의 비정상적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며 이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효과를 일으키고 이는 북한의 도덕적 타락, 낙후성 등을 나타낸다. 또한 북한 여성은 한 편으로는 창녀의 이미지로 한 편으로는 그렇기에 우리(남한)가 구원해내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창녀의 이미지로서는 지도자의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와 맞물려 망국의 이미지를 드러내지만 구원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탈북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 역시 여성의 기호가 북한 정권,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그리고 여성화된 북한의 이미지와 이어지는 맥락으로 최근 미디어에서 탈북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사유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채널A의 프로그램인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이하 잘 살아보세)는 북한을 ‘여성화’하고 ‘미성숙한 존재’이자 ‘전근대적인 세계’로 묘사하며 궁극적으로 향수와 낭만의 대상으로 의미화한다(방희경, 이경미: 2016: 1). <잘 살아보세>의 구성원은 40-50대 남한 남성과 20대 미혼의 탈북 여성으로 ‘문명화된 남성’으로서의 남한, ‘비문명화된 여성’으로서의 이미지가 생산되고 ‘미모의’, ‘어린’ 여성을 북한의 상징으로 이용함으로써 북한을 ‘여성화’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설정한다. 또한 ‘인민반장’의 직위를 차지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북한 장교 출신 탈북 여성과 남한 남성이 투표를 통해 공동체의 리더를 정하는 등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대비시킨다거나 탈북 여성이 벽돌을 하나씩 나를 때 남한 남성은 수레 등의 도구를 이용하는 모습을 대비시키는 등의 서사를 이용함으로써 북한-여성-미개-비이성-비민주, 남한-남성-문명-이성-민주의 담론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방희경·이경미, 2016: 350-351).

적을 비정상적 섹슈얼리티의 이미지로 그려내는 담론은 한반도의 특이점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9.11의 지시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 성적이고 신체적인 일탈자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는 동성애자이면서 동시에 과잉 이성애적 형식을 띠거나 실패한 모노가미로서 오리엔탈적인 버전의 폴리가미를 수행하는 이로 나타난다. 사담 후세인이 소돔Sodom 후세인으로 불리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Puar, 2007: 38). 적을 비정상적 섹슈얼리티로 고정시키는 것은 자국의 규범성(모노가미, 이성애적)을 공고히 하며 이를 통해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자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와 추방banishment의 메커니즘의 맥락(Puar, 2007)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간 대대적인 소문으로 김정은의 억울한 바를 짐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의 정상부부 이미지 역시 남한의 정상화와 추방의 메커니즘에 이용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남한 대통령과 정상국가의 상징으로 모노가미 형태의 이성애자임을 만천하에 알린 북한 지도자는 역시나 한 핏줄이었다.

나가며, 그래서 뭐 어찌라고가 아니야

민주주의를 외치는 와중에도 여성혐오는 있더라, 이 나라에서 아직도 로맨틱한 특전사 남성 이미지가 팔리더라, 북한도 여기에 합세했더라 한탄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남성/여성, 동성애/이성애를 넘어 정상/비정상, 도덕/비도덕으로 확장되는 이분법이 다양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어느 맥락에서나 이분법 안에 존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억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적폐를 욕하기 위해 여성을 끌고 오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자와 이 여자는 달라, ‘정상여성’의 이미지를 다시금 만들면 될까? 적폐가 아닌 여성은 지금까지 통용된 ‘개념녀’ 담론과 얼마나 다를까? 대통령이 특전사이자 이성애자의 이미지를 구축할 동안 균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대위’는 어떻게 될까? 동성애가 군대기강을 해친다는 주장에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군대기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남성다운’ 동성애자의 모습을 주장하며 군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북한 여성을 기쁨조에 빚대고자 하는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까? 이성애가 두 정상(頂上)의 정상(正常)의 상징으로 등극한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본 남북한의 성소수자들은 무슨 심경일까?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여러 맥락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어찌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상/비정상의 구도에서 소외된 이들이 처해있는 환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지속되고 실질적 종전 선언까지 합의한 시점에서 통일이나 자유로운 왕래를 상상할 때 여전히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억압의 꼴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너까지 겪게 할 수는 없어, 하는 심정. 조금이라도 창피할 일을 줄이려면 주변을 봐야 한다. 막연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서 구체적인 억압으로 시선을 낮추고 ‘누가 정상인가’가 아닌 판을 깨는 질문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방희경, 이경미(2016), “중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일상’으로의 전환, 이념적 정향의 고수”, 『한국언론학회』 60(2), pp338-365
- 김홍미리(2017),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시민과세계』, 2017. 6, 137-168
- Jasbir Puar. (2007). “The Sexuality of Terrorism”, 『Terroist Assemblages: Homonationalism in Queer Times』. 36-78
- 〈한나라 홍보물 “여자는 아는 게 쥐뿔도 없어” “여자는 뉴스를 바퀴벌레 다음으로 싫어해”…여성 비하 논란〉, 프레시안, 2010. 05.17
- 〈김무성 “여성대통령 나와야 남성 ‘못된 짓’ 근절” 남성 정치인, 부패사범·성범죄자로 몰아붙여…“포퓰리즘 난무, 애국적 노력 필요해”〉, 오마이뉴스, 2012. 11. 13
-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대구 시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며 새누리당 대구 당사 간판을 ‘내시환관당’으로 바꾼 바 있다. 〈대구 시민들의 분노, 새누리당 당사 간판 '내시환관당'으로 교체〉, 중앙일보, 2016. 12. 04
- 여성으로 묘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진보남성에 쫓기는 모습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시사N의 한 만평에서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등장했다. (김홍미리, 2017:152)
- KBS 2TV 〈연예가중계〉, 2018.07.27 방송 참조

속도의 페미니즘과 ‘속도’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사유.

정경직

서문.

속도에 대하여.

“나는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페미니스트였던 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속성이거나 정체성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 구성된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완결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누구도 완성된 페미니스트일 수는 없다. 페미니즘도 페미니스트도 스스로를 완결하고자 하는 욕망은 죽음의 충동이다. 더 이상은 사유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제는 변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스스로를 멈추게 만든다.

이는 비단 페미니즘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어떤 철학자도 철학하기를 멈춘 채로 철학자일 수는 없다. 어떤 과학자도 과학적 탐구를 멈춘 채 과학자일 수 없다. 일각에서는 페미니즘의 비일관성, 미완결성, 다양성을 이유로 페미니즘을 철학이 아니라거나, 비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상으로 평가 절하하고자 한다. 참으로 재미있는 주장이다. 철학이나 과학은 과연 일관되고 완결된 학문이며, 체계적인 것일까? 답은 명백하다.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며, 새로운 발견을 해나가는 분야가 철학과 과학이다. 완결되지 않고 왕성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오히려 가장 생명력 있는 학문인 것이다. 논쟁이 멈추고, 더 이상 연구할 내용이 없는 학문, 문제제기할 것이 운동, 새로운 해석은 없이 원전만을 읊어대는 교조주의는 일관되고 완결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때문에 나는 미완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라 발화한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부분성을 성찰하는 것이 사유의 기본이다. 이 시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자신과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변화를 사유할 때 떠오른 개념이 ‘속도’다.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개념인 속도는 시간과 공간의 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나의 변화 속도, 페미니즘의 변화 속도, 타자의 변화 속도, 세계의 변화 속도들을 생각해보고 싶었다.

많은 이들이 속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며 어려워 보인다는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어려울 것 없다. 시간과 공간, 변화하는 나와 세계 그리고 페미니즘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다. 서문은 여기까지. 이제 지금, 여기를 다뤄보자. 2018년이라

는 흐르는 시간과 한국사회라는 공간의 매트릭스에서 살아가는 특정한 시공간적-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1. 속도의 페미니즘이란?

불화의 인식들 :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새로운 인식 틀로써 기존에 당연하게 보이던 것들을 의심할 수 있게 해준다. 페미니즘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성별화 되어 있는지, 그 성별화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어떤 것을 은폐해 왔는지 등이다. 즉 페미니즘은 일종의 렌즈이다. 기존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 포착된다.

예컨대 프랑스의 생물학자이자 미생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이 파스퇴르(우유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는 현미경을 이용해 미생물이 동물이나 인간의 신체에 침입함으로써 질병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파스퇴르의 발견 이전까지 의사들은 ‘질병’의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사들의 ‘손’을 통해 병이 전파되거나 병을 고치는 이라는 의사가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수도룩했다. 렌즈를 바꾸자 기존에 치료하는 ‘손’의 지위는 이제 세균이 득실거리는 ‘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이런 시각의 변화는 신체에 침입하는 세균을 살균법의 발견과 백신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파스퇴르의 발견은 기존의 의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의사들은 파스퇴르의 연구를 부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이처럼 당연한 것의 지위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뒤바꿔 놓는 인식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일상에서 수없이 마주하지만 인식되지 않던 차별과 폭력 그리고 배제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경을 쓰는 것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 널려있는 미생물의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불편함과 직면하는 것이다. 일상은 이제 불화의 장이 된다.(물론 기존의 일상도 결코 평온하지 않았겠지만) 이처럼 페미니즘을 비롯한 새로운 인식 틀은 항상 기존의 규범과 제도로 이루어진 권력의 망과 불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의 매트릭스는 중력이 존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힘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므로 불화는 지식의 전파 과정에서 필연적이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직전에 지동설을 발표한다. 카톨릭 교회는 그의 이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결국 그가 살아있을 때 지동설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가 죽고 난 뒤에야 지동설의 영향력은 조금씩 파장을 일으켰다. 1616년 그가 사망한 후 약 70년이 흐른 뒤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금서로 지정됐다. 코페르니쿠스를 계승한 것은 갈릴레오였다. 갈릴레오 또한 탄압을

면치 못했다. 그는 1633년 로마의 종교 재판소에 섰다. 결국 스스로의 주장을 저주하고 혐오하며 포기한다는 맹세를 하고나서야 풀려났다. 그럼에도 그는 종신 가택 연금에 처해진 채 서서히 죽어갔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의 시대에 지식의 전파는 대부분 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속도’의 문제다. 지식의 전파 속도,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의 시대처럼 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지식과 인식 틀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속도의 페미니즘.

오늘날 페미니즘은 속도와 결합했다. 페미니즘에 속도를 부여한 조건은 무엇보다도 성 차별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재의 한국사회’라는 시공간적이고 사회적인 장이다. 그리고 IT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 매트릭스 또한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시공간적-사회적 조건 덕분에 최근 페미니즘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며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물론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여성학 강의가 개설된 것은 1977년이다. 벌써 40년이나 되었으니,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담론이 어떤 시기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지칭하는 ‘속도의 페미니즘’은 여성학, 페미니즘 일반이 아니라 메갈리아, 강남역 살인사건, 해쉬 태그 운동, 미투 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며 확산된 페미니즘 담론(운동)을 지칭한다. 이를 단순히 넷 페미니즘이라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이 넷 공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논의들이 보여주듯이 사이버 스페이스와 대비되는 리얼 월드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온라인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된 페미니즘은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정한 행위 양식을 주조한다. 따라서 나는 이를 ‘넷 페미니즘’이라 칭하기 보다는 ‘속도의 페미니즘’이라 부르고 싶다.

이 글의 핵심적인 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속도의 페미니즘은 빠른 확산, 신속한 대응, 가벼운 행위를 가능케 한다. 이런 속도의 페미니즘의 특징들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속도의 페미니즘의 발생시키는 효과는 특정한 한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빠른 속도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 워마드, 다음 카페,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을 통해 온라인에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는 페미니즘에 빠른 속도를 부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 내용들은 다소 평면화 되었다.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이 속도와 결합하면서, 대중에게 페미니즘이 전파되는데 용이해졌지만 반대급부로 기존의 페미니즘이 다루고자 했던 문제의식이 납작해지는 경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어 ‘속도’ 개념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시 사유하고자 한다.

2. 질주하는 페미니즘 : 속도의 페미니즘의 성과

여성혐오 담론의 확산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었다. 범인은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했다”고 살인의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살해당한 여성은 범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었다. 그저 ‘여성’이란 이유로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살인사건은 ‘여성혐오’²³⁾ 살인 사건 혹은 여성(Female)과 살해(Cide)의 합성어 페미사이드(Femicide) 즉, 여성 살해로 명명되었다. 이 참혹한 사건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한국사회에 ‘여성혐오’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들이 대중들에게 ‘여성혐오’란 키워드로 이해된 경우는 없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오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시민들의 ‘포스트잇 추모’가 진행되었다. 빠르고 신속한 이런 대응은 휘발적인 것도 아니었다. 사건 이후 시민들이 남긴 포스트잇의 총 숫자는 무려 3만 5천개에 달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혐오라고 명명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며, 신속하게 이루어진 페미니스트들의 대응은 한국 페미니즘 운동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 할만하다.

이런 여성혐오 담론의 확산에는 사이버 스페이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2015년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에서 출발하여 탄생한 ‘메갈리아’를 꼽을 수 있다. 메갈리아는 메르스 갤러리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합성어이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혐오를 되돌려주는 전략인 ‘미러링’을 구사하며 빠른 속도로 온라인 공간에 자리 잡았다. 메갈리아의 등장을 계기로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재편되었다. 기존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들은 패션, 화장품, 아이돌, 음식 등 주로 ‘여성적인’ 소비 주체간의 정보공유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했다. ‘여성시대’, ‘썩빵’, ‘뽕뽕’ 등의 기존 커뮤니티들에도 여성혐오 담론이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재생산 되었다.

23) 여성혐오라는 용어의 확산에 기여한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치즈코의 책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에서 치즈코는 ‘여성혐오(misogyny)’란 여성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을 객체화하고, 여성의 능력을 무시하고, 남성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고 여성의 특성을 구분 짓고,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분류하고 숭배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여성적인’ 소비주체 커뮤니티와 페미니즘 담론의 결합은 페미니즘 콘텐츠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와 소비를 불러왔다. 이에 부흥하듯 수많은 페미니즘 서적들이 출판되었고, 페미니즘 키워드의 사회과학 도서들의 판매량은 급증했다. 기존의 방식으로 출판된 ‘나쁜 페미니스트’,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등의 페미니즘 입문서는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출간 1년여 만에 50만부 판매를 달성했고, 2018년 100만부 판매의 고지를 눈앞에 두는 성과를 거뒀다.

거기에 텀블벅 등의 새로운 콘텐츠 생산방식도 가세했다. 텀블벅은 출판되어 나온 책을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콘텐츠의 기획안을 보여준 후, 후원을 약속하는 후원자들을 먼저 모으고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출판시장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가능케 한다. 이런 방식으로 출판된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은 2016년 6월 텀블벅에서 후원을 진행, 총 2,624명에게 후원받아 목표액의 2,184%인 43,695,500원을 모았고 텀블벅만으로 약 4500권이 판매되었다.

전통적인 지식 전달의 매체인 출판시장에서의 열풍뿐만 아니라 속도의 페미니즘은 대중문화의 전 영역을 질주하며 수많은 변화를 촉발 시켰다. TV프로그램, 드라마,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라디오, 게임 등 수많은 대중매체와 콘텐츠들은 페미니즘의 인식들로 (재)평가 되었다.

‘진지(Positon)’로서의 여초 커뮤니티

질주하는 페미니즘의 실천은 여성혐오 담론을 기반으로 전 방위에 걸친 대중문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상에서 수없이 행해지던 발화와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그동안 불편함 없이 받아들여지던 콘텐츠들이 담고 있던 여성혐오적인 요소들이 까발려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여초’ 커뮤니티들은 상품 정보를 나누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주체들의 커뮤니티의 성격을 넘어,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진지로 변모했다.

물론, 이런 변모는 단순히 여성혐오 담론의 확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사이버 매트릭스는 그 형성과정에서 이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서사를 갖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누구나 접속가능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시공간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여겨졌다. 이런 온라인 공간의 특성은 평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온라인 공간도 기존의 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이버 스페이스와 리얼 월드는 대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말해주듯이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은 평등하지 않았다. 컴퓨터나 PC통신 인터넷 등 물질적 인프라가 보급되는 속도에는 자본, 국가, 지역,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개인들의 접근성에는 계급, 계층, 직업, 연령, 성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 인프라의 보급과 인터넷 접근 자체에도 수많은 제약이 부과되는데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는커녕, 가입하면서부터 실명을 인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한 한국의 사이버 매트릭스는 나이주의와 성별 이분법의 작동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채팅방에 입장하면 성별과 연령부터 묻는 관행은 우연히 성립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적인 사이버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문법이었다.

성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 온라인상에서 집요하게 이용자의 성별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은 관리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물론, 이용자들 간의 관계에서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관리자들은 실제로 수많은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은 가입 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남/여라는 이분법적 성별을 표기되도록 하고, 성별을 이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하였다. 특히 MSN, 버디버디, 네이트온 등의 한국 사이버 공간을 장악한 초창기 메신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MSN은 직접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메신저였지만, 버디버디와 네이트온은 성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한국적인’ 메신저였다.

이렇게 형성된 사이버 매트릭스가 젠더 이슈에서 자유로울리 만무하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군 가산점제 논쟁 등이 벌어지며 ‘여성’에 대한 플레이밍²⁴⁾이 횡행했다.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들은 대피소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안전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놀이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소위 ‘여초’ 커뮤니티이다. 때문에 여초커뮤니티는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폐쇄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온라인 성희롱과 여성혐오 정서를 고려할 때, 남성 회원들의 가입 없이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경험이나 사생활을 공유하며 토론 할 수 있는 안전하게 분리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시공간적이고 사회적 맥락들을 고려한다면, 여초 커뮤니티의 변모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진지에서 기동전(War of Movement)으로

진지를 구축한 ‘여성’들이 여성혐오를 비판하는 신속한 움직임은 기동전에 비유할 수 있다. 기동전은 병력을 빠른 속도로 움직임으로써 주요한 거점을 타격하여 전쟁에서의 주

24)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악용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말, 욕설, 적대적인 언어 등을 뜻한다. 인터넷 게시판 문화에서 드러나며, 특히 여성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토론에 참여할 때 격화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도권과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이다. 기동전에서는 병력의 절대숫자보다 당장 신속하게 가용 가능한 병력의 숫자가 중요하다. 적이라고 간주되는 이의 진입을 제한하고, 안전을 확보한 ‘여초’ 커뮤니티라는 진지에서 여성혐오적 콘텐츠의 좌표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일시 타격하는 전술의 효과는 상당했다.

이런 전술적 움직임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잡지’ <맥심>은 2015년 9월 여성을 납치·살해·시체유기 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표지로 내걸었다. 열린 자동차 트렁크 사이로 여성의 다리가 청테이프로 결박된 채 나와있고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사진이었다. 이 표지는 여성혐오 콘텐츠로 순식간에 온라인상에서 공유되었고 수많은 비판이 맥심 코리아로 쇄도했다. 결국 맥심코리아는 판매 중인 9월호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5년 9월에는 소라넷 폐지 운동도 물살을 탔다. 소라넷은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은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와 성폭행 모의 등으로 악명이 높은 사이트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폐쇄 당시 이 사이트의 회원수는 최소 100만에 달했다. 소라넷의 폐지에도 진지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확산과 신속한 대응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했다.

살펴보았듯 속도의 페미니즘의 성과는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는 빠른 ‘확산의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와 기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파되는 페미니즘 담론의 가장 큰 무기는 ‘속도’라고 할 수 있다. 빠른 전파 속도를 기반으로 속도의 페미니즘은 각종 이슈들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예컨대,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에 바로 포스트잇을 통한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여성혐오’ 발언 등 또한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전파되고,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보도가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자, 바로 당일 그의 트위터 지지자그룹이었던 팀 스틸버드는 지지를 철회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지지를 표하며, 안희정이 주장하던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 절차와 시스템과 같은 가치들이 모두 허위였음을 시인했다. 놀랍도록 신속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장동민, 김윤석, 방탄소년단, 유아인 등 연예인들은 여성혐오 발언으로 이슈가 되었다. 팬들은 연예인들에게 페미니즘 서적을 선물하며 반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빠른 확산의 속도는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했다.

더하여 속도의 페미니즘은 행위의 무게감을 줄여주는데도 기여한다. 해쉬태그를 다는 것,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리트윗 하는 것, 게시물을 올리는 것, 온라인 청원에 참여하는 것, 댓글을 남기는 것, 문자를 보내는 것 등은 기존의 저항적, 정치적 행위인 시위나 집회의 비장함과 무거움을 덜어내고 손쉽게 정치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3. 평면화된 페미니즘 : 속도의 페미니즘의 효과

상대의 속도를 소거하라.

속도의 페미니즘이 발생시키는 효과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긍정적인 성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빠른 확산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가벼운 행위의 무게감이라는 속도의 페미니즘의 무기는 매우 예리한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속도의 페미니즘의 강력한 효과는 빠르게 적을 규정하고, 전선의 정보와 좌표를 공유·확산하고, 적으로 규정된 상대를 집중포격 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런데 이렇게 신속히 그어지는 전선으로 규정된 적은 언제나 변함없는 적일까? 시공간적 맥락을 삭제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구성된 적은 완벽하게 타자화 된다. 완벽한 타자화는 시간의 흐름을 빼앗는 것, 공간 속에 정박시키는 것. 즉 그것은 타자에게서 ‘속도’를 소거하는 것이다.

한번 분명하게 그어진 전선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는 의심의 눈총을 받는다. 진지는 병영이 된다. 해방을 위한 전쟁터에서 신속히 전선으로 뛰어 들지 않는 이는 용기가 없는 겁쟁이로 취급되거나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회색분자로 인식된다. 전투를 치르는 이들은 모두가 힘들다. 같은 고통을 나누지 않고 혼자 편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방의 그날까지 철저히 배척된다. 이제 서로는 서로를 감시한다. 모두가 함께 탈 코르셋이라는 군복을 차려입고, 진지에서는 계속해서 정신을 무장하며, 스스로의 행위를 규율한다. 판옵티콘의 작동이다. 전선에 앞장서서 뛰어 들라 외치던 지휘관들은 어느새 하나 둘 배신자가 되어 처단된다. 해방의 그날은 무한히 유보된다.

심층적인 구조와 권력관계의 은폐

‘적’과 ‘아’라는 대결의 구도는 입체적인 시공간을 평면화 시킨다. 어떤 사안을 둘러싼 복잡하고 구체적인 맥락은 소거되고, 구조적 문제는 은폐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 혹은 The private is political)는 페미니즘의 통찰은 뒤집혀 모든 정치적인 사안은 개인적인 것이 된다. 실천의 문제는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되고 만다. 전선에 뛰어 들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용기의 문제로 축소된다. 이렇게 입체적인 시공간과 사회적 맥락을 평면화 시키는 전쟁정치에서 대응은 개별화된다. 판단과 대응은 순식간에 이뤄져야 하므로 심층적인 논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전장에는 누가 적인지를 식별하는 물음만이 남는다.

심층적인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던 ‘여성혐오’ 담론은 어떤 개인이 얼마나 여성혐오적인지를 판별하는 평면화된 논리가 되어버린다. 이 사회의 지배적인 법과 규범과 권력관계가 얼마나 억압적인지를 폭로하고자 했던 시도는 이제 한 개인이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감별한다.

역사적으로 특수한 자본주의의 형태, 즉 지금, 여기의 신자유주의가 성별 범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는 인식되지 않는다. 세계체제와 국민(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국경선이 어떻게 국민과 비국민을 경계지우고, 내부의 국민들을 분할하는 통치가 작동하는지는 다룰 수 없다. 하나의 전선으로 온 병력을 집중시켜 총력전을 펼치고자 하는 시도는 내부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가능하다. 행군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자, 군복을 벗는 자, 규율을 위반한 자, 적과 내통하는 자, 아군을 비판하는 자, 이상한(귀어한) 자, 장애가 있는 자, 자연-환경의 파괴를 생각하는 자 등은 더 이상 아군이 아니게 된다. 단 일하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이런 체계적인 배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선에는 철의 장막이 드리운다.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의 이분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 코르셋과 탈코르셋의 이분법, 페미니스트와 안티페미니스트의 이분법 등 수많은 이분법이 작동한다. 장막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탈영의 신호로 여겨진다.

4. ‘속도’를 페미니즘적으로 재사유하기.

다시 속도를 부여하기.

우리(인간도 자연도 세계도)는 모두 속도를 갖는 존재이다. 속도를 갖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좌표위에서 위치성을 바꾸는 것, 시공간의 매트릭스 속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속도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와 타자가 시공간의 매트릭스에 위치한 부분적이고 연결된 존재라는 것, 동시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Be(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Being(변화하고 운동하며 수행하는 존재)이다. 단적으로 우리 중 누구도 본 투 비 (Born to be)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된다.

인간의 신체는 성장하며 재생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거치며, 언어와 지식을 습득·구사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나이 들어간다. 속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느 것도 시공간의 매트릭스를 넘어서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물역사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 영원한 진리, 완전한 자유, 완벽한 해방은 없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의 시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이 조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한계를 부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건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가 시공간의 매트릭스에 위치 지워지고 조건 지워졌다는 사실이 불완전하지만 지식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속도를 도입하여 평면을 벗어나기.

우리는 모두 시공간의 매트릭스에 위치 지워진 속도를 갖는 존재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감각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모두의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페미니즘은 이전부터 이런 속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남성’의 속도와 ‘여성’의 속도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남성의 생애주기와 여성의 생애주기는 다르게 그려진다. 특정한 맥락에서 예를 들면, 20대의 여성을 결혼 적령기 혹은 가임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다. 20대 남성에게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남성 범주의 나이 듦을 평가할 땐 포도주로 비유하며 숙성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여성범주의 나이 듦은 꽃으로 비유되며 시드는 것으로 취급된다. 퀴어범주의 나이 듦은 어떨까? 이처럼 서로의 삶의 속도는 성별이란 범주에 따라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페미니즘은 이에 반기를 들며, 왜 성별 범주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평가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 문제제기는 개별적인 ‘속도의 차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범주’에 따른 평가 방식에 혹은 ‘범주 자체’에 개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엔 자본주의적인 사회적 맥락을 끌어들여보자. 자본주의적으로 시간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임금’이다.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임금은 동일한가? 이런 시간 감각의 차이들은 더 확장될 수 있다. 자본가의 시간과 노동자의 시간은 동일한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의 가치는 5억으로 평가되었다.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비율인 환형유치 비율은 보통 일당 10만원이다. 이렇듯 우리는 속도 개념을 끌어들이므로써 평면적인 사유방식을 넘어서, 입체적인 시공간성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사유할 수 있다.

속도의 차이에 기반한 정치학.

이제 속도 개념을 끌어들여 정치학을 재구성해보자. 어떤 목적지로 이동할 때, 나는 별 무리 없이 네이버 길 찾기 어플을 통해 확인한 예상 소요 시간 안에 충분히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심지어 내 경우에는 보폭이 빠른 편이라, 종종 어플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착하곤 한다. 그런데 만약 다리를

다치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한다면 완전히 다른 속도를 느끼게 될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던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서도, 버스를 승하차하는 데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일상적인 거리가 장애물로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간에 신호가 바뀌진 않을까하는 걱정, 내 뒤를 따라 승차하는 사람이 답답해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 아직 내리지 못 했는데 버스가 출발해버리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 등이 엮여서 새롭게 구조해내는 시간과 공간의 경험, 즉 속도의 차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모든 이의 속도 그 자체를 동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우리는 그 속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정치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사례로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에도 이런 ‘속도’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보행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 1m당 1초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용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1m당 1초보다 완화된 0.8m당 1초를 적용한다. 물론 이런 차등적 시간 적용이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대기 시간을 매우 답답해하고,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보행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속도를 고려하는 정치학은 어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버리는 정치학이 아니다. 수많은 요소에 대한 고려와 타협이 필요한 정치학이다.

불행히도 이런 속도의 차이는 ‘신체’의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 주변 공간을 뻘뻘이 에워싸고 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신체를 갖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수준의 부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어떤 성별인가? 등의 사회적 맥락들도 속도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서로 다른 속도들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 누군가는 더 빨리 페미니즘을 새로운 인식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우리는 연결됨으로써 서로의 속도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속도를 사유하는 새로운 정치학의 출발점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정치적인가? 올바른가?

맥락의 윤리, 연대의 정치를 위하여

최성용 (성공회대 MAINS 대학원)

오늘날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이름의 흐름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페미니즘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페미니즘 이슈가 한국사회의 주요한 갈등축으로 부상했고, 사회적 논란과 쟁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시대는 이런 혼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관이 변동하는 시기엔 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들과 뒤처지는 이들 사이의 갭, 간극이 발생한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불러온 논란들 자체가 이런 간극의 존재를 방증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이, 변화에 뒤처지는 이 모두 간극을 각자의 방식으로 메우려고 한다.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뒤처지는 이들은 양성평등—성평등이 아니다—이라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최소한의 전제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현재 페미니즘의 주장이 ‘역차별’, ‘여성우월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을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퀄리스트’라고 하기도 하며, 자신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페미니즘의 모든 가치와 주장들을 전면 부정하며 페미니즘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아노미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입장들은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변화 중인 사회에서 변화 이후/이전의 간극을 퇴행적으로 메우려는 시도이다.

반면 페미니즘의 편에 선 이들의 경우에도 그 간극을 메우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 불을 붙인 ‘미러링’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포함해 일상 속에서 발화되는 여성혐오적 언어들을 ‘반사’함으로써 기존의 언어들에 스민 남성중심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미러링은, 현재까지도 예민한 쟁점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이 간극을 좁히려는 주요한 시도 중 하나는 종종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이하 PC)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PC적 실천이 대두된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페미니즘과 안티 페미니즘 진영을 막론하고 PC에 대한 논쟁과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논쟁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난망하다고 하여 그 질문들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잡한 논점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더 나은 논쟁과 실천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치와 윤리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PC라는 개념에 내포된 여러 이론적, 실천적 긴장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PC의 정의 및 그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2절과 3절에서는 각각 윤리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PC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PC가 가진 탈맥락적이고 이분법적 도덕주의의 효과를 비판하면서, 맥락적 윤리와 연대의 정치라는 입장에서 PC의 의미와 위상을 재설정해볼 것이다.

1. 정치적 올바름이란?

PC에 대한 기본적 정의

오늘날 PC는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PC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으나, 트럼프의 당선에 기여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부여받으며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혐오가 점증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에 대한 대항 실천 속에서 PC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PC는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문화와 언어에 대해 성찰과 비판을 제기하는 페미니즘적 실천의 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 페미니즘이 상식적 규범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혹은 전술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PC는 비단 여성 범주나, 페미니즘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약자, 소수자적 억압과 관련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의 정치 행위의 일례로 한정지어 논의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PC는 세 가지의 일상적 의미·이해를 가진다. 각각 ① 기존의 용례 및 이해 ② PC 비판자들의 이해 ③ ‘메갈리아’적 이해라고 칭해보겠다. 우선 PC의 기존의 용례를 의미하는, 약자와 소수자를 비하·차별·모욕·혐오하는 발언 및 문화를 비판하고 대안적인 언어 및 문화를 제안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의 PC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병신’이라는 말에 담긴 장애 비하적 함의를 지적하면서 ‘병신’이라는 말을 쓰는 걸 제한한 다거나, ‘김치녀’라는 말의 여성혐오적 함의를 문제제기 하는 등이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서 확장된 일상적 이해도 널리 퍼져있다. 하나는 이른바 ‘PC충’이라는 조어를 사용하는, PC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소위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조어처럼, PC충이란 말은 언어나 문화에 대해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위치시키고, 비판의 대상을 도덕적 악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는 PC의 개념과 행위에 내포된 일정한 한계, 즉 PC적 실천이 탈맥락적이고 이분법적인 도덕주의 경향을 지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숙고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한 말과 문화에 혐오·비하·차별이

내포되어 있다는 PC의 문제의식에 대해, ‘PC충’이라고 반박하는 건 논거를 들며 정면으로 반박(“그건 비하와 혐오와 무관하다”)하는 것이 아닌 우회적 불멘소리(“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도덕적이다”)에 가깝다. 또한 이 불멘소리가 혐오 정서를 합리화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심을 키운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것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PC를 쉽게 말해 ‘정중하고 착하게 말하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미러링과 관련된 논쟁에서 발생했다. 메갈리아의 등장 이후,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여성혐오적 언어들에 대해 인권 친화적 언어를 고려하여 비판하기보다, ‘한남충’과 같은 방식으로 거칠게 되받아쳐 말하기(미러링)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게 됐다. 그 밑바탕엔 착한 여성이라는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거칠고 과감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있었다. 이런 맥락 하에서 PC는 미러링과 어느 정도 배치되는 ‘코르셋을 착용한, 착한 태도’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미러링과 PC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정의, PC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및 용례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PC의 기존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PC는 미러링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러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혐오적 언어·문화에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미러링은 PC의 하위범주다. 미러링의 원본에 포함된 혐오적 뉘앙스까지 되돌려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언어와 관련된 PC적 실천은 세 가지 유형으로 거칠게 분류해볼 수 있다. 제한, 대체, 전유(의미변화). 우선 특정한 언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앞서 언급한 ‘병신’이나 ‘김치녀’가 전형적인 ‘제한’의 사례다. 혹은 대체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배우’는 성중립적인 ‘배우’로, ‘장애우’는 ‘장애인’이라는 말로 변형·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전유(의미변화)도 이뤄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퀴어’다. ‘퀴어’는 원래 ‘이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성소수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기존에 담긴 의미를 뒤집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미러링의 경우에는 언어적 실천에 관한 위 세 유형과는 겹치면서도 다르다. 미러링은 문제적인 언어의 제한·대체·전유를 제안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 기존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즉 PC하지 않은 언어를 뒤집어서 PC하지 않은 방식 그대로 남성들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미러링이 PC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해도, 그 목적이 PC하지 않은 언어들을 극복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미러링은 PC의 실천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PC에 대한 두 번째 정의(PC 비판자들의 이해)와 세 번째 정의(메갈리아적 이해)를 채택하는 입장 양자가 미러링이라는 쟁점을 경유하면서 PC 개념에 대해 수렴되는 이해를 보인다는 것이다. 오늘날 젠더와 관련된 논쟁의 대척점에 있는 안티 페미니스트와 메갈리아는 미러링을 각각 ‘남성혐오’ 혹은 ‘PC와는 다른 실천’으로 이해한다. 전자의 경우 ‘PC충 극혐’이라고 말하면서도, 혐오의 개념을 거의 비속어와 같은 범주로 이해해 미러링이 PC하지 못하다고, 즉 ‘남성혐오’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PC충’을 운운하지만, 정작 ‘남성혐오’를 포함해 모든 ‘혐오’를 하지 말자는, 즉 (착하게 말하기로서의) PC를 옹호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메갈리아는 위악적 실천으로서 미러링을 제안하고 주도하면서 ‘착하게 말하기로서의 PC를 ‘탈코르셋’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중 일부는 PC적 실천 자체를 부정하면서 PC의 자기 구속적인 도덕성을 거부한 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다. 요컨대, 혐오의 의미를 오도한 이들은 ‘남성혐오’를 하지 말라는 PC에 대한 오도된 이해로 나아가고, 그 반대편에선 PC의 의미를 ‘착하게 말하기로’ 오해하며 PC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내재한 혐오를 제약할 수 있는 PC적 관념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다.

PC에 내재하는 긴장과 모순이 이런 오해를 빚게 하는 까닭 중 하나이다. ‘이중잣대’라는 비판은 미러링 이전부터 PC에 주로 가해져왔다. 종종 PC의 주창자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다수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PC하지 못한 언어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온 탓이다. 이는 PC적 실천이 처음부터 소수자와 다수자의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소수자와 다수자가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놓여있다고 전제하면, 다수자를 향한 소수자의 비난과 다수자가 소수자를 겨냥하는 혐오는 동일시 될 수 없다. 이런 태도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다.

PC적 실천은 아직 공용어의 지위에 이르지 못한 규범을 이미 상식적 규범이 된 것처럼 다룸으로서, 상식적 규범이 지닌 도덕주의적 소구력을 빌려온다. 가령 여성혐오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수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성혐오 하지마” 라는 요구를 통해 도덕주의적 소구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위 ‘남성혐오’ 논란처럼 소수자가 다수자를 향해 PC해 보이지 않는 말을 할 때다. 이런 경우 여전히 소수자적 입장에서 권력관계를 비판한다는 정당성을 갖지만, 동시에 PC가 빌려온 도덕주의적 소구력은 자가당착에 빠진다. 도덕주의는 그 속성상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PC는 애초부터 서로 양립하기 쉽지 않은 도덕주의적 보편성과 소수자의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PC를 ‘착하게 말하기로’ 단순화해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PC는 착하게 말하기가 아니라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어와 문화에 대항하는 운동이고 정치적 전술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PC적 실천은 언어를 통한 사회의 구성가능성을 전제한다. 언어는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회가 언어라는 틀로 걸러진 것이다. 현재의 언어들에 차별과 혐오가 스며들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는 이들이 언어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자들의 입장에 서서 언어를 변화시키는 실천을 통해 이 사회를 바꿔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사회 세계와 언어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상호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적으로 부정하긴 힘들다. 그래서 PC는 그저 정중하고 착한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세계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한다. 미러링이야말로 이런 문제의식의 생생한 사례다.

PC가 놓인 사회적 '간극'과 딜레마

PC와 관련된 논쟁에 있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PC에 부정적인 두 번째 정의와 관련되어 있다. PC라는 말은 1960년대 미국에서 사용될 때부터 오늘날 한국에 이르기까지, 진영을 막론하고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소환되고 호명되었다. 특히 PC적 실천은 논증과 토론을 생략하고 말이 쓰인 맥락을 무시한 채 '도덕적으로 후려친다'는 비판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입장, 그렇지 않은 입장 모두에게서 제기되어 왔다. 가령 '화냥년' 등의 여성혐오적 단어를 문제시할 때, 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발생한다. 페미니즘적 비판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까닭은 너무 도덕적인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들도 PC적 실천이 그에 내포된 강한 도덕주의로 말미암아 맥락적 사고를 가로막고, 유연하지 못한 정치적 실천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거칠게 정리하면 PC는 안티페미니즘과 페미니즘 사이에서 온전히 환영받지 못한 채, 그러나 회피할 수 없는 실천양식으로서 늘 비판적 고려대상이 되어 왔다.

PC가 이런 애매한 위치에 놓인 원인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간극'의 존재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문제제기는 오래도록 이뤄져 왔다. 이를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법적, 도덕적으로 상식적인 규범으로 수용된 것처럼, PC적 실천은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의 범주나 함의에 대한 상식적 이해가 불충분한 것도 사실이며, 여성혐오 등의 페미니즘적 언어는 아직 사회적으로 온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페미니즘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세계관이자 인식론으로 정의한다면, 페미니즘의 세계관이 아직 상식적 규범·세계관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공용어라기보단 아직까지 사투리나 방언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혼란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페미니즘을 자신의 상식적 규범으로 수용하지 않은 이들, 혹은 페미니즘 자체를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페미니즘의 언어를 통한 비판은 언제나 도덕적 비난으로 이해된다. 느닷없이 자신이 도덕

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의 세계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세계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새로운 세계관을 접하고 받아들인 이들은 기존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세계를 쉽사리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게 된다. 기성의 세계에 불만을 품고 변화를 희망하는 이들은 언제나 이런 딜레마를 마주하게 된다.

PC는 바로 이런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는 개념이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용납되기 힘든 문화와 언어가 있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건 도덕적 판정이 아니라 정치적 유연함을 통해 가능하다. 정치적 유연함은 타협의 과정을 포함하기에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문화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다. 이런 딜레마가 PC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유연함을 요구하게 한다.

2. 정치적 올바름과 맥락의 윤리

맥락에 기초한 설득과 연대의 가능성

앞서 잠깐 언급했듯 PC는 탈맥락화를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PC가 가진 도덕적인 소구력이 모든 사건과 대상을 선/악의 이분법적 잣대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군무새’가 왜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느냐 울부짖을 때, 거기에는 여러 맥락이 혼재되어 있다. 기존에 강고하게 존재하는 구조적인 젠더 위계를 부정하려는 ‘역차별론’의 맥락도 있지만, 실제 징집되는 남성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보다 더 전형적인 사례로 미러링을 들 수 있겠다. 미러링이 거칠고 모욕적인 외양을 갖고 있지만, 미러링 그 자체를 남성혐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러링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기존의 한국사회가 가진 여성혐오와 가부장제적 차별의 토양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PC가 가진 이분법적 도덕주의의 경향은 특정한 언어와 문화가 가진 다층적인 맥락을 축소시켜 하나의 맥락만을 선별하게 만든다. 앞선 예에선, 군무새의 주장을 ‘뺨은 역차별론’으로만 한정하거나 미러링을 ‘남성혐오’로 이해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것은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현실을 하나의 맥락으로만 ‘환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환원주의적 사고를 벗어난다. 부정적인 의미의 ‘퀴어’라는 말은 오늘날 자긍심과 자력화empowerment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되었다. ‘예쁘다’는 외모평가조차 특정한 맥락과 관계에서는, 여성혐오나 성적 대상화의 부정적 함의 없이 통용되기도 한다. 어떤 언어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규정하는 이해로는 이런 맥락적 다층성을 포착할 수 없다.

맥락을 무시하는 PC, 요컨대 ‘무맥락PC’는 애초에 페미니즘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기존의 주류적 언어는 남성중심적인 것이었기에 여성의 경험과 맥락은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구호는 언어화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채 사적인 것으로 치부된 여성의 경험과 맥락에 천착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페미니즘 이론의 역사 역시 성소수자와 소수인종, 제3세계 사회 등,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맥락과 경험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페미니즘은 타자의 맥락을 듣거나 자신의 맥락을 느끼며 그것을 언어화하는, 그야말로 맥락적인 인식론인 셈이다. PC에 내포된 도덕주의가 이런 맥락적 사고·인식을 가로막는다면, 페미니즘적 실천에서 PC의 함의와 위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생애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그 개인이 ‘뺨은 말’을 할 때 그것을 도덕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페미니즘적인 실천인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PC적 실천은 강한 도덕적 소구력에 기대어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정작 그 도덕적 잣대는 상식적 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PC적 실천은 페미니즘적 주장들을 마치 이미 상식적 규범이 된 것처럼 전제하고서 도덕적 비판을 가한다. 이런 방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느닷없이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비판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페미니즘적 인식론에 기초해 ‘뺨은 말’을 비판하기 위해선 비판 대상이 딛고 있는 다층적 맥락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무맥락PC’의 방식은 특정한 ‘뺨은 개인’의 복잡한 맥락을 무시한 채 그를 도덕적으로 뭉갬으로써, 문제를 구조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특정 개인이 문제적인 발언을 하게 만든 맥락과 구조적 조건을 지적하여 그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구조적 힘들을 성찰하게 하기보다, 그 개인만을 도덕적 악으로 문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난받은 이에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비판의 대상이 처한 복잡한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비판하면서 설득해낼 수 있는 언어적 힘을 확보하게 해준다. 이를 위해선 상대방의 맥락, 경험세계와 언어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잘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개인에게 내재한 혼재되고 모순되는 맥락들을 섬세하게 포착해 특정한 맥락들을 강조하면서 전유해내는 실천이 가능해진다. 나는 이것이 맥락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적 인식론이 가진 정치적 힘이라고 생각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이 ‘뚜까패기’를 그만두자는 제안은 아니다. 다만 맥락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적 사유에 기초해 무맥락적인 도덕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페미니즘은 여성차별에 반대하므로, 페미니즘을 비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은 곧 여성차별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문제적인 것인 언어의 차이라는 맥락을 무시한 채 여성차별의 여부라는 이분법적 도덕주의를 강하게 환기한다는

데 있다. 애초에 페미니즘이 공용어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아주 상이하고 다양하게 수용되고 이해된다. 이런 맥락들을 모조리 무시한 채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여성차별·혐오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무맥락PC’의 한 사례일 것이다. 그런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도덕주의가 자아내는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악이 더 크다.

역으로 복잡한 맥락들을 놓치지 않고 고려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안티 페미니즘적 정서를 제압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논리, 더 강한 언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테면 ‘군무새’의 언어 속에서 그가 겪은 피해와 고통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분리함으로써, 그의 경험에 페미니즘적이고 더 정확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동시에 피해의 고통과 왜곡된 해석을 만들어낸 구조적 원인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기존에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던 이들까지도 포괄하는 연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은 연대의 확장성과 논리의 탄탄함을 넘어, 페미니즘이 더 나은 정치적 전망이자 공용어로서 수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대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인의 협소한 자아를 넘어서는 활동이다. 한 개인의 경험세계는 그 자체로 풍부한 광맥이지만 그러나 제한적이기도 하다. 그 경험세계를 넘어서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경험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는 곧 자신이 겪지 않은 또 다른 폭력의 경험을 직면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토대로 공감과 연대를 이뤄내는 과정이 된다. 어떤 남성들은 “밤길이 무섭다”는 여성의 말에 “나도 무서우니 그만 찡찡대라”고 답하기도 한다. 이는 편향적으로 타인의 경험을 듣는 것이고, 연대가 아닌 고립을 불러일으키는 이해다. 고통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언어에 마치 거대한 벽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병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역으로 타인의 경험과 맥락을 듣는 태도는 “나도 무서운데 너는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공감으로 이어진다. 차별과 소외, 폭력의 경험은 오로지 한 개인에게만 특수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에는 수많은 종류의 폭력이 만연하고, 누구도 그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상이한 종류의 폭력이라 하여도 폭력은 어떤 공통성이 있어 사람들을 공감과 연대로 이끈다.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정직하게 수용하는 것은 타인의 경험과 맥락을 공감하는 힘이 커지는 것과 함께 간다. 반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을 유지하려는 이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타인의 맥락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그것에 다른 해석을 부여하는 일은 곧 나와 당신의 상호적인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맥락적 윤리에 기초한 이런 공감과 연대의 실천은, 도덕주의적 함의가 강한 PC적 실천의 틀과는 다른 것이다.

속죄 페미니즘과 주관적인 도덕주의를 넘어

PC의 도덕주의적 함의가 만들어내는 실천적 한계는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다. 특히 특정한 위치와 정체성에 속한 이의 피해 경험을 다른 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애초에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적 능력상 타인의 경험과 맥락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경험세계 너머에 있을 경험되지 않은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능하며, 그런 노력이야말로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이 세계에 편재한 폭력은 인식의 불완전성을 넘어서게 하는 연대의 보편적 기초가 될 수 있다. 폭력과 차별의 경험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성찰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세계를 넘어 타인의 폭력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속죄 페미니즘’은 가장 경멸스런 형태로 PC와 정체성 정치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이성애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성애자 남성이 스스로를 가해자이자 특권자로 이해하며 자신의 가해자로서의 위치와 경험을 ‘속죄’하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적 실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페미니즘이라기보다는 도덕적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적당할 것이다. 속죄 페미니즘은 스스로를 페미니즘의 편에 위치시켜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길 욕망하면서, 사유의 근육을 쓰길 포기한 채 이미 진리를 독점했다고 여겨지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경험과 감정은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이가 절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앵무새가 되는 것만이 가해자가 유일하게, 다른 가해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여성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피해자이자 타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영원한 가해자로서 특권적 위치를 점하는 존재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도덕주의적 기만의 회로에 사로잡힌 비윤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속죄 페미니즘의 시혜와 동정의 페미니즘으로 귀착된다.

속죄 페미니즘의 거울상은 주관성의 윤리학이라 할 만한 것이다. 특정한 정체성만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맥락이 존재한다는 정체성의 정치의 전제는 윤리를 주관성의 차원으로 환원한다. 이를테면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이가 느끼는 ‘불편함’ 그 자체가 PC적 주장을 근거가 되는 경우다. 불편하다는 느낌만으로 폭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개인의 주관성이 진리와 도덕의 토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사유와 논증을 사라지게 만들고,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이의 주관적 느낌에 도덕적·지적 권위를 부여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정한 폭력과 차별에 있어 당사자의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당사자에게 도덕적·지적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연대가 아니다. 연대는 서로의 맥락, 경험, 감정에 대해 부단히 성찰하고 사유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관계다. 당사자가 스스로의 경험을 언어화하는 일마저도 그 경험을 들어주고 연대의 관계를 맺는 이의 존재 없인 불가능하다. 질문과 성찰 없이 주관적 느낌에 근거한 당사자주의는 사유와 맥락마저 부정하는 도덕주의의 함정에 빠져 버린다.

사회적 약자의 가장 큰 무기는 역설적으로 언어와 사유다. 약자의 언어는 주류적 담론과 규범의 허점이며 그것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균열의 장소다. 하지만 사유와 논쟁을 통한 언어화를 포기하고 주관적 느낌에 머무르는 한 균열의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남는다.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한 주장은 논증 없는 주장에 그치거나, 상대주의적 논증으로 미끄러져 자신의 경험과 감각이 가진 강력한 힘을 스스로 해소해 버린다. 이런 한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나 편재한 폭력의 경험이 연대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신과 타인에게 내재한 폭력의 경험, 맥락을 성찰하여 그것을 만들어내는 구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토론과 논쟁이 없는 사유는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앙상하고 창백한 도덕주의는 이런 전제 위에선 뿌리내릴 토양을 잃는다.

맥락적 윤리란 결국 '자유'의 가능성을 확보해준다. 자신을 옳아매던 구조적 제약과 피해의 경험들을 정직하게 바라봄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맥락을 고려하는 근육이 바탕이 될 때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타인에게 자유롭게 말을 걸고 타인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다. '무맥락 PC'가 내포한 도덕주의가 이런 자유를 가로막는다면, 차라리 PC를 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당사자성 너머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서

이아름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과정

서론.

2018년 10월 6일, 혜화역에 제 5차 “불법촬영 성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날 모인 여성들은 집회 측 추산에 따르면 약 6만 명이었다. 이들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촬영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한국 남성’을, 여성의 피해를 외면하고 왜곡해온 ‘남경’과 ‘알탕 언론’을,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정부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 시위를 주최하고 있는 ‘불편한 용기’²⁵⁾ 측은 인터넷 웹 사이트 ‘다음’의 카페이다. 이들 주최 측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시위 참가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위의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하기 위함”이며,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몰카 범죄와, 같은 몰카지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시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²⁶⁾다고 밝히고 있다. “생물학적 여성”이란 논쟁적인 용어의 거침없는 사용에 대해 많은 퀴어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혐오가 아니냐’며 입을 모아 비판하였고,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 역시 ‘여성운동은 여성끼리 할테니, 트랜스젠더 운동은 트랜스젠더끼리 하라’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처럼 온라인 곳곳에서 비판과 논쟁이 계속 되었으나, ‘불편한 용기’ 측은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이 시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배제에는 이견”이 있지만, “일반화된 몰카 공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²⁷⁾에서 시위참가자 K씨는 “당사자성에 의한 분노”가 자신을 시위로 이끌었음을 강조하며,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저 ‘공감, 위로, 지지’에서 보통 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이들은 곧 통감을 감출 수 없게 된다. 불편한 용기측은 5차 시위에서 노골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붉은 행렬 가운데 “남자 혹은 트젠²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보이면 신고”하라는 피켓이 떠올랐던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불편한 용기’ 측이 시위 주체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불법 촬영물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위를 만들고자 했던 움직임도 있었다. 이들은 ‘연대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25) <http://m.cafe.daum.net/Hongdaenam>

26) <http://m.cafe.daum.net/Hongdaenam/ig3k/62>

27) <http://omn.kr/rllm>

28) 트랜스젠더의 약자.

설립을 계획하였고, 이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모였던 초기 멤버들은 약 80명에 이른다. 이들 멤버는 다양한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로 이루어져있었으며, 나 역시 이들 중 하나였음을 밝힌다. ‘연대하는 페미니즘’은 ‘불편한 용기’ 측으로 연락을 취해,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네 번째 시위에서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시위 참여자 제한을 폐기할 것을 제안하고자 했다. 또한 시위 당일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전제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구체적 계획을 모색했다.

결과적으로 이 움직임은 무산되었다. 논쟁은 ‘연대’라는 용어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에서 촉발되었다. 상기한 활동 계획을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B’와 그에 동조했던 몇 사람이 있었고,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라고 밝히고 있는 ‘I’는 “트랜스 배제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I’는 “피부에 닿지 않으면 못 느끼는 바가 있나보네”라거나, “트랜스 당사자가 배제적이라고 느꼈는데 사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거나 “그냥 앨라이²⁹⁾들끼리 운동 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도리어 반박하고 나섰다. 연대 제의가 갖는 정치적 의도는 무시하고, 그 자체를 트랜스젠더 혐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의견이었다. 조금 더 사실대로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 몇몇 역시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사과를 하니, 마니하며 반나절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자, 피로감에 지쳐 사람들은 하나 둘 떨어져나간다. 게다가 ‘I’에 의한 아웃팅³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단체 채팅방은 완전히 와해되고 만다. 이렇다 할 단체가 조직되기도 전에 움직임이 좌절된 것이다.

내가 위의 사건들을 병렬해 제시한 것에는 두 집단처럼 보이는 ‘여성’과 ‘트랜스젠더’ 사이에 공통된 전제인 ‘당사자성’을 보여주고 싶어서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당사자성’ 또는 ‘정체성’ 페미니즘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정체성에 천착하여 발언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늘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전제를 또 한 번 뒤흔들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주장한다. 젠더 억압이 당사자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이처럼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주제를 누군가 다뤄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동은 서로를 이해할 길이 없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치달아 소멸되고 말 것이다.’ 나의 위기감은 이것이다. 이제 누가 더 젠더 억압의 당사자인가를 논하는 것은 과연 소모적이다.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비판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분리할 수 없는 수많은 정체성들이 가로지르고 배치되는 바로 그 지점에 개인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인권의 연결성과 다양

29) ally, 소외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지지하지만, 그 집단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을 말한다.

30) outing,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성을 사유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트랜스젠더해방도 여성해방도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안정된 재현 주체를 상정하는 당사자성,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고 배타적인 실천을 넘어선 정치적, 윤리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온라인 장에서의 여성.

한국 온라인 공간의 역사를 보자. 한국 온라인 공간의 젠더 문제는 남성중심성과 여성들이 그에 진입하고자 노력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의 남성중심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이었다. 물리적 신체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별, 연령, 계층, 직업, 거주지, 학력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간의 접근 자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 성별 분리가 본격화된 것은 1998년 전후의 군 가산점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2월에 군 가산점제 헌법 소원이 제기되자 온라인 공간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 이용자의 수가 현저히 적고 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다. 때문에 여성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임이 확인되면 여성 전용 동호회 공간에서조차 해당 논쟁에 휘말렸고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다. 1999년 해당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에는 ‘한국남성운동협의회’, ‘여성징병추진위’, ‘남성우월자모임’, ‘한국남성연합회’ 등이 생겨나고 안티 페미니즘 사이트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여성혐오 정서가 온라인 공간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로 자리했다.

때문에 여성들은 여성들만으로 분리된 공간을 찾기 시작했고, 이에 인터넷에서는 여초 커뮤니티³¹⁾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처음에 남초 커뮤니티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는 남초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여초 공간에서는 첫째로 여성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여성신문’, ‘여성 연합’ 등의 기존 주류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여성 사이트를 만들었고 이어서 영 페미니스트 그룹이 등장하여 ‘달나라 딸세포’, ‘언니네’ 등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등 페미니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형 포털사이트의 카페, 커뮤니티들이 여성혐오적 정서에 지친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들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 없이 놀이문화를 즐기고 다이어트, 화장품 등의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단 이들 커뮤니티는 남성 회원의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남성 회원이 여성의 신분을 몰래 이용하여 침투할 것을 우려하여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주민등록증과 아이디를 적은 메모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인증하도록 했다. 또한 특정한 날에만 회원가입을 받거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하는 등의 조건이

31) 남녀 각각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한 쪽의 성비가 다른 한 쪽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의 수가 100보다 많은 것을 남초, 100보다 적은 것을 여초라고 한다.

뒤따랐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공간이었던 온라인 공간을 젊은 여성 위주의 카페들이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겠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우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가 기존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20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SNS 이용률은 남성이 44.2% 여성이 45.8%로 여성이 약간 더 높고, 게다가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하여 SNS라는 새로운 공론장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평등한 온라인 공간 참여에 대한 기대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 넷-TERF의 탄생.

SNS를 통한 여성주의 움직임은 2015년 한국을 뒤덮은 메르스(MERS)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해는 한국인의 의식 세계에 의도치 않은 큰 변화를 남긴 기념비적인 해가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메갈리아’³²⁾의 등장 때문이었다.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여성운동 웹사이트들은 오프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운동을 주도했다. 이들은 2011년에 있던 잡년 행진³³⁾ 만큼이나 여성들의 폭발적인 사회적 움직임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SNS에서도 페미니즘 담론을 형성하고 세력화하고, 또한 분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페이스북 내에서는 여성주의 파벌화가 절찬리에 진행 중이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세력은 TERF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TERF³⁴⁾는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약칭으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를 일컫는다.

이들은 젠더담론의 철폐와 섹스담론의 부활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온라인 페미니즘 공동체에서 게이, 트랜스젠더 여성 등 남성의 성을 부여받은 이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정서를 조장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성희롱과 차별, 공격을 받아온 여성들의 방어적 태도라고 보는 주장이 있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과 혐오 발화를 놀이문화로 삼는 등의 행태를 보건대 그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³⁵⁾을 조롱한답시고 “나는 고양이로 정체화하고 있으니 고양이 젠더다.”라는 언설을 내뱉거나 트랜스젠더와 정신병자를 합성하여 “젠신병자”라는 말을

32) <http://www.megalian.com>

33) 토론토의 한 경찰관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여자들은 슬럿slut, 즉 성매매 여자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2011년 토론토 여성들은 슬럿처럼 차려 입고 “슬럿처럼 입을 권리”를 포함하여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였다. 같은해 한국에서도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분노했던 ‘도둑갱이’라는 트위터러안이 “20번 리트윗 되면 한국에서도 슬럿워크를 하자”는 트윗을 올렸던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판 슬럿워크를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조직되었다. 이를 잡년행진이라 부른다.

34) 모든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TERF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페미니즘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http://theterfs.com/2013/10/11/terf-where-the-term-comes-from>

35)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좁게는 외과적 수술, 호르몬 요법 등을 말하는 트랜스섹슈얼trans sexual, 넓게는 ‘이성’의 옷을 입는다고 간주되는 크로스 드레서cross dresser와 드랙drag도 포함한다.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한 게이를 조롱하기 위해 항문성교를 연상케 하는 “똥고충”, “앵나 온다” 등의 표현을 놀이 문화처럼 즐기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성소수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성소수자 아웃팅 문제다. TERF의 대표 커뮤니티인 ‘워마드’³⁶⁾는 ‘메갈리아’에서 불거진 ‘게이 아웃팅 사건’에서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이 분화되어 탄생한 사이트다. ‘메갈리아’는 사건 당시, 게이 혐오 정서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이 ‘워마드’로 분열되어 나가고, ‘미러링 기법’³⁷⁾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메갈리아’는 2016년 폐쇄되고 만다. 그 이후 현재까지 ‘워마드’는 게이나 트랜스젠더의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사진을 찾아 동의 없이 게시하고 개인정보를 폭로하는 등 아웃팅을 이어가고 있어,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공포와 공분을 사고 있다. 주장컨대, 이것은 기득권의 활용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지 여권에 대한 기여도 아니고 여성주의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들의 세력이 확장되는 속도이다. 정경직이 다루고 있듯 여성학계의 복잡한 논의들이 무색하게, 온라인에서 페미니즘 이슈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이분법 인식틀로 환원되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TERF들이 주장하는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기초한, 쉽고 자극적으로 이해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설명들은 분리주의적 공간이었던 여초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흡수되었다. 현재 여초 커뮤니티의 대표 격으로 여겨지는 ‘여성시대’³⁸⁾나 ‘쭈빵카페’³⁹⁾ 등의 카페들에서 TERF들이 활약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불편한 용기’ 역시 ‘워마드’에서 파생되었다.

트랜스젠더 VS ‘생물학적 여성’.

‘여성혐오’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심화되었다. 2017년 욕망샵을 운영하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고, 넷-페미니스트들은 이를 ‘여성혐오’에 의한 살인사건이라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시위를 조직하려던 주최⁴⁰⁾ 측은 시위 참여자를 “생물학적 여성”만으로 제한하였고, 이에 TERF와 트랜스젠더 간 논쟁이 유발되었다. 성중립화장실 이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중립화장실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젠더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1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를 여성 공간에 대한 생물학적 ‘남성’의 침입이라 간주한 TERF들은 성중립화장실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으로 찾아와 집단으로 공격하였다.

36) <https://womad.life>

37) 혐오 발언을 정확히 반사해 되돌려주는 거울 기법, 뒤집기 실천이다.

38) <http://cafe.daum.net/subdued20club>

39) <http://cafe.daum.net/ok1221>

40) <http://cafe.daum.net/Thevoiceofwomen>

TERF들은 트랜스젠더(이때 트랜스젠더는 MTF로 한정된다)는 “남성으로 살다가 여성으로 변화한” 것이므로 시스젠더 여성의 차별 경험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며, 남성으로 살면서 이미 특권을 누렸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여자 화장실 등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곳이 몰카촬영범죄 등에 훨씬 일상적으로 노출되므로 트랜스젠더는 공론화의 대상자가 아니며, 오히려 트랜스젠더 역시 여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때 트랜스젠더를 여장남자로 묘사한다)이라 주장한다. 스스로를 TERF는 아니라고 소개하는 이들이 ‘나는 트랜스젠더나 게이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서론으로 시작하여 ‘그래도 남성의 몸male body와 여성의 몸female body는 태어날 때부터 경험이 다르다. 피메일 바디만이 겪는 특별하고도 공통된 억압이 실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해석은 트랜스젠더를 시스젠더의 경험에 의거하여 상상하거나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지워버리는 행위이다. 이처럼 ‘시스젠더’⁴¹⁾들 간의 특별한 공통 억압 경험을 강조하는 경험주의적 경향에 트랜스젠더 역시 정체성에 의거한 당사자성으로 맞서게 된다.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 아웃팅과 성범죄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공포, 트랜스젠더만이 겪는 구직의 어려움 등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랜스젠더들만 겪는다는 특수한 억압 경험은 ‘앨라이’나 ‘시스젠더’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다. 트랜스젠더 ‘앨라이’임을 자처하는 트랜스젠더 프렌들리friendly한 이들 중에도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시스젠더와 구별되는 특별한 경험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줘야 하는 영역이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얼핏 보기에 두 집단처럼 보이는 이들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었고 갈등 종식의 가능성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페미니즘 제2물결과 퀴어이즘이 내포하고 있던 정체성 정치, 그 이면의 배타성이 남겨놓은 결과라고 하겠다.

페미니즘 제 2물결의 성과와 한계.

1960년대는 페미니즘 제2물결의 시대였다. 1950년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여성참정권이 실현된 이래로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적 대등한 교육을 받고 의식화 되었다. 이들은 남성들과 함께 빈부격차와 인종차별, 반전운동과 동성애 인권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투쟁이 계속 될수록 여성들은 남성들과 계급적 이해만으로는 동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성적 억압의 경험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평등과 자유, 해방의 가치를 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경험이 사사롭거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함을 알게 된 여성들은 집단 여성, “여성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며 여성간 연대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탄생한 슬로건이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The private is political” 이다. 제 2물결은 여성 억압의 원인과 그 극복 방법을 놓고

41)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된다고 여겨 성별 위화감을 겪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적인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들은 각자의 입장을 모색하고 정립하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페미니즘은 다음 시대를 맞이한다. 수많은 포스트 이론과 결합한 새로운 포스트 페미니즘 이론화 경향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제3물결이라 부르기도 한다. 포스트페미니즘은 제2물결까지 이어져온 페미니즘의 보수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다. 제2물결은 다른 정체성의 요소들보다 먼저 구성된 것으로 이해되는 여성 주체를 정치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었다. 계급이나 인종, 섹슈얼리티 등은 그러한 정치적 모델에 덧씌워져 결합되는 요소로 이해되었다. 제3물결은 그러한 정치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억압의 양상, 모순적 위치성, 나아가 정체성의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발전시켰다.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라 정치적 범주다.

서론에서 서술한 “생물학적 여성이란 논쟁적인 용어” 라는 언설에 대해 ‘왜?’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논쟁은 3물결 페미니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기존 페미니즘에서 정설로 받아들였던 섹스(생물학적 성)와 젠더(사회적 성)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였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등장하면서 여성학계에 커다란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섹스 역시 젠더만큼이나 문화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버틀러의 주장은 섹스를 해체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생물학적 자연에 대한 소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순수한 생물학적 실체가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주장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언설을 보자. 보부아르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1949년 당시, 지배적인 성 담론은 사회생물학이었다. 남성의 성은 충동적이고 능동적인 반면, 여성의 성은 수동적이고 반응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고 모든 사회적 행동의 기초를 생물학적 근거에서 찾으려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보부아르의 주장은 사회 규범이 여성성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연적인 실체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고 비판한 것이다.

버틀러는 한발 더 나아가서, 겉보기에 자연스러운 성적 사실들이 정치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과학 담론인 양 이해되고 있었다면, 섹스가 불변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몸의 경험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역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젠더이지 않

은가. 자궁을 적출하거나, 환경한 여성을 훼손된 여성이라 간주하던 가부장적 이성애주의와 “자궁이 없는 자, 말하지 말라”라는 넷-페미니스트들의 언설은 얼마나 상통하는가. 버틀러는 ‘생물학은 운명’이라는 공식을 논박할 의도로 제시된 섹스와 젠더 간의 구분이 오히려 그 주장에 공헌하게 되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버틀러는 2세대 페미니즘이 그동안 다뤄오지 않은 가부장적 이성애주의를 퀴어의 정치학으로 비판하면서 역대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도발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버틀러는 운동 주체로서 보편 여성이라는 일관되고 매끄러운 재현 주체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정치성 논의에도 반기를 든다. 버틀러에 의하면 주체가 정치학에 앞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정치적인 지점이다. 왜냐하면 정치학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주어진 주체가 있다는 생각은, 배타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주체가 구성되고 생산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용어는 늘 가변적이고 모순적으로 성립되며, 누군가를 규정하는 완전한 의미가 될 수 없다. 즉 여성이라는 재현 대상은 그 자체로 불안한 경합의 장소가 되는 문제적 용어이다. 배타적인 실천은 결국 ‘동일성의 폭력’이라는 또 다른 폭력에 가담하면서 더 심한 파편화를 불러일으킨다.

퀴어 운동의 정체성 정치 비판.

퀴어 이론은 인간을 특정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범주로 구획하는 권력을 문제시하며 출발했다. 그렇기에 퀴어 이론은 섹슈얼리티를 다룬다는 인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⁴²⁾ 섹슈얼리티 이론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게일 루빈은 『성의 역사』 제1권에서 섹슈얼리티의 계층에 기반해 특정 섹슈얼리티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퀴어 이론은 이성애중심주의를 비롯하여 특정 섹슈얼리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권력 작동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트랜스젠더 이론가 루인에 따르면 실제로 퀴어 연구는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의제에 지나지 않았다. 섹슈얼리티를 논의한다면 응당 다루어야 마땅한 낙태, 임신, 출산, 성폭력 등의 논의들이 퀴어 의제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다.

루인에 따르면 1990년대 초 미국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트랜스젠더를 퀴어의 일부라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실천은 이성애 규범성에도 도전하는 움직임이지만, 트랜스가 젠더를 재구성하는 실천은 기존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반복, 재생산하는 행동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루인에 따르면 그러한 주장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지정 받은 젠더가 일평생 유지되어야 하고,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젠더 위계 질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간주하는 기존 규범과 다르지 않다. 지정받은 성별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성애 외의 다른 성적 지향 역시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42) 루인(2018), 「젠더로 경합/불화하는 정치학: 트랜스젠더퀴어,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연구의 이론사를 개괄하기」, 『여/성이론』, 통권 제38호, p.120; Morland, Iain(2009), “What Can Queer Theory Do for Intersex?”, GLQ, Vol. 15, no. 2, pp.285~312, 재인용.

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퀴어 연구가 무화시키려한 섹슈얼리티 권력 관계는 지배적 섹슈얼리티의 위치에 다시금 공고히 자리매김 한다.

정체성 운동화된 트랜스젠더 운동.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1991년 미국 트랜스젠더 활동가 홀리 보스웰Holly Boswell에 의해 고안되었다.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용어는 특정 정체성을 지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 양식, 실천 양상을 지칭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리즘은 2물결 페미니즘 및 퀴어 이론과 범주 및 개념 구성에 있어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두 이론이 정체성 정치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넷-페미니스트들의 경험주의적 경향에 트랜스젠더 역시 정체성에 의거한 당사자성으로 맞서면서 한국 트랜스젠더 운동은 일면 정체성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은 당연히 퀴어 운동의 한 축이라고 이해되고 있었기도 했다. 트랜스젠더 운동이 LGBT를 표방하는 퀴어 운동의 정체성 정치에 흡수, 결합하면서 트랜스젠더의 당사자성과 외과적 수술 경험이 강조되었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생물학적 결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간성이 호출되었다. 그리하여 트랜스젠더라는 몸을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고 ‘시스젠더’나 ‘앨라이’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특수한 억압 경험이 실존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설명에는 시스젠더 집단과 트랜스젠더 집단의 매끈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몸을 완전히 다른 경험을 체현하는 육체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강조하건대, 트랜스섹슈얼의 경험을 소거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트랜스섹슈얼의 경험이 이해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다. 다시 말해 트랜스섹슈얼의 경험이 트랜스젠더의 본질적이고 생물학적이고 핵심적인 경험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고안된 이유는 외과적 수술을 감행한 트랜스섹슈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 실천을 통해 다른 젠더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였다. 루인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확산시킨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를 태어날 때 지정받은 젠더와는 다른 젠더로 살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원하는 이들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가 규정한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존재로 트랜스젠더를 정의했고, 이를 통해 트랜스섹슈얼 뿐만 아니라 트랜스베스타이트transvestite, 크로스드레서crossdresser, 드랙퀸drag queen, 드랙킹drag king, 부치 레즈비언butch lesbian, 여성스러운 게이, 젠더 비순응자, 젠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이성애자 등을 포괄하고자 했다. (...) 이를 통해 트랜스 운동을 특정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 아니라 더 폭 넓은 저항과 해방 운동으로 규정했다.”(pp.104~105)⁴³⁾

또한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경험이라 여겨지는 트랜지션을 수행했을 때 겪는 위협이나 아웃팅에 대한 문제는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것도 아니고, '트랜스젠더'들만 겪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TERF들이 행하는 탈-코르셋 운동⁴⁴⁾을 나는 트랜지션의 일환이라 이해한다. 이들 역시 기존의 여성성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꿀페미'라는 식으로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오는 등 일상적인 위협에 노출된다. 나는 위의 인용문에 열거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젠더들이 트랜지션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바지는 어떤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상승하고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남성이 입는 옷인 '바지'가 유니섹스화 된 것이다. 또한 아방가르드한 패션으로 여겨지는 남성의 치마 착용도 트랜지션의 일부다. 한국 사회에서 제3의 성이라 여겨지는 '아줌마'가 특별한 날에 여성의 인공적인 자질을 따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번쩍번쩍한 브로치와 수어개의 반지들, 올림머리, 과하리만큼 붉은 립스틱을 바른 모습 말이다. 이는 여성성을 모방하는 드랙의 수행과 같은 젠더 수행이다.

이제 서론에서 소개했던 '연대하는 페미니즘' 사건을 상기해보자. 'I'의 주장은 트랜스젠더를 존재론적으로 환원하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트랜스젠더를 단순히 생물학적 오류라 해석하는 기존 이분법적 질서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정박된다. 또한 간성inter sex⁴⁵⁾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다. 간성이 생물학적 이분법의 오류를 폭로하는 존재로 가시화되면서 그러한 몸 자체를 담론 이전의 본질이라 오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양성인간 에르퀼린의 이례적인 몸을 담론이나 규범 이전의 몸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담론이 생산한 해결 불가능한 양가성ambivalence의 기호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쉽게 말해 '본래적인 다원성'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담론이란 폭력에 연루되기에 탄생한 존재라고 본 것이다.

교차성에서 배치로.

재스비어 푸아는 정체성으로서의 퀴어성을 대체할만한 개념으로 '배치assemblage'를 제안하면서 교차성 모델을 비판한 바 있다. 푸아에 따르면, "정체성의 교차성 모델은 인종, 계급, 성별, 섹슈얼리티, 국가, 연령, 종교 등의 구성 요소를 구별 가능하고 해체될 수 있는 부품으로 간주"한다. 푸아가 보기에 퀴어 이론 작업은 교차성 분석에 헌신함에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인식론적 의지를 심문하는 데 실패한다.

43) 루인(2018), 「젠더로 경합/불화하는 정치학: 트랜스젠더퀴어,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연구의 이론사를 개괄하기」, pp.101~131.

44) 탈코르셋 운동이란 벗어나자는 뜻의 '탈'(脫)과 여성 억압의 상징 '코르셋'(체형 보정 속옷)을 결합한 말로 다이어트, 화장, 렌즈 등 '꾸밈 노동'으로 상징되는 여성 억압적 문화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운동이다. 출처: 위키백과.

45) 해부학적 성적 특징이 성별 이분법적인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퀴어에는 본질도 정체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퀴어성이란 사방팔방에서 나타나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사실은 내게 교차성에서 배치로 옮겨가기를 제안한다. (...) 교차성 모델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정체성에 대한 인식, 명명, 안정화를 요구한다. 이는 정체화 과정에 담긴 허구성과 수행성을 부정하는 진보의 서사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이 된다고 할 때, 어디에서나 매끄럽고 안정적인 정체성이라는 허구를 공고히 다져주는 건 초시간성이다. 교차성은 다양성을 관리하는 도구이자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외는 주문으로서, 인구조사, 인구통계, 인종 프로파일링, 감시 같은 규율적 국가 장치와 공모한다. 정체성이라는 어지러운 것을 판에 박힌 체계 안에 밀어 넣어버리려고만 하는 구조 안에 “차이”를 포섭시켜버린다는 차원에서 말이다.”(p.101)⁴⁶⁾

“배치로서의 퀴어는 퀴어 주체와 비퀴어 주체의 이항 대립이 지니는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고자 한다. “퀴어를 이의 제기, 저항, 대안의 의미로서만 유지하기 보다는 지배적 대형과의 공모성과 우발성을 강조”한 것이다. 배치로서의 퀴어는 퀴어한 신체들을 상호 침투하고 소용돌이치며 서로에게 정동affect을 전달한다. 배치는 존재론에 빛을 지면서, 인식 불가능한 것들을 지지하고 존재하기(들)을 넘어서 생성되기(들)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비정체성의 정치학: 우발적으로 배치되는 ‘나’.

언어학자 롤랑 바르트는 ‘나’는 ‘나’라고 말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며, 언어는 <인간>이 아닌 주어를 알 뿐이라고 말했다. 주어는 텅빈 것으로서 언어를 고갈시키는 데에 그친다는 것이다. 버틀러는 단일한 범주의 주체가 없는 ‘비정체성의 정치학’을 탄생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윤리적 폭력 비판』에서 나만의 특이성을 정초하려는, 자기-요약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한다. 언어의 어둠 속의 도약이랄까, 언어의 불투명성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나를 설명하는 일은 타자에게 향하는 말걸기에 의존한다. 이것은 내가 타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타자 역시 같은 이유로 부름 받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버틀러는 “여기서 타자는 말하자면 나의 정동적affective 삶의 가능성의 조건이고, 내 것인 욕망들과 욕동들을 불러일으키는 대상-기원으로서의 내 안에 비치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즉 ‘나’를 정체화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나’를 조건 짓는 1인칭적인 관점을 탈구해야 한다.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주체를 단언할 때, 자아에 대한 일차적 불투명성을 인정할 때야말로 타자에게로 향하는 윤리적 확장이 가능해진다. 버틀러는 ‘나’가 타자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나me’로 존재하기 때문에, 타자에 의한 호명은 처음부터 윤리적 호명이라고 본다. 이제 너와 나는 완벽히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연루되고 정동하기에 나는 너이기도 하고 너는 나이기도 하다. 타자에 대한 윤리적 요청이 가능해지

46) 푸아, 재스비어(2016),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사회』, 제29권, pp.88~118.

는 지점은 여기이다. 정박된 나를 말하기를 탈취당하고, 어떤 '나'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무책임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 당사자성, 정체성을 벗어난 연대의 정치적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고미송(2010), 『그대가 보는 적은 그대 자신에 불과하다 :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주의 인식론』, 푸른사상.
- 김세은 외(2013), 『다시보는 미디어와 젠더: 여성커뮤니케이션 연구 총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윤화(2018),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 STAT Report, 18-11.
- 루빈, 게일(2015), 『일탈』, 신혜수 외, 현실문화.
- 루인(2018), 「젠더로 경합/불화하는 정치학: 트랜스젠더퀴어,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 연구의 이론사를 개괄하기」, 『여/성이론』, 통권 제38호, pp.101~131.
- 바르트, 롤랑(2002), 『텍스트의 즐거움: 롤랑 바르트 전집 12』, 김희영, 동문선.
- 버틀러, 주디스(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문학동네.
- 버틀러, 주디스(2013), 『윤리적 폭력 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양효실, 인간사랑.
- 푸아, 재스비어(2016),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사회』, 제29권, pp.88~118.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 가정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전소현

- I.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
- II. 피해, 가해의 당사자가 해석하는 가정폭력 사건
- III. 피해, 가해의 당사자의 자기 인식과 그 결과
- IV. 나가며, 고통의 가치에 주목하기

I.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

‘나 너희 집으로 올라가면 안 될까?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 부모님은 일 년에 두세 번 간헐적으로 집을 뛰쳐나온다. 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으키는 가정 폭력, 아내폭력의 중재자 역할을 가족으로부터 요구받아왔다. 하지만 결국엔 불가능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이다. 가족이 뛰쳐나가고 다시 그걸 붙잡는 일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일이다. 스무 살 이후에 독립해 따로 사는 공간이 생긴 후에도 이 역할은 끈질기게 날 따라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집을 뛰쳐나오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집으로 도망쳐오면 난 그들을 어르고 달래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내곤 했다.

가족을 위한답시고 그들의 원래의 위치로, 역할로 되돌려 보냈던 내 행동은 귀를 막고 나와 그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임시방편이었다. 집을 나오는 그 순간은 당신이 가족의 파열을 드러내고 자신의 억압적인 위치와 내면을 직면한 순간이었을텐데. 내면이 비명을 내지르고 감행하는 가출. 그 파열을 견디지 못하고 메우려 애를 썼다. 존재가 비명을 내지르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는 순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유예했던 일들이 더 큰 후과가 되어 돌아오는 홍역을 여러 번 겪고서야 지금은 이 고통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 이제껏 놓지 못했던 역할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떨어지려는 가족을 붙잡으려 애쓰는 역할. 지금도 그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비껴하려고 하는 노력은 힘이 든다.

명백하게 존재하는 우리 가족 안의 피해와 가해의 기억을 덮고 그런 정체성을 경험하는 나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붙잡아두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나와 우리 가족

은 우리를 고정된 자리에 묶어두려는 관념과 힘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를 한 자리에 못박아두려는 힘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덜 억압적인 자리로 스스로 이동해가는 일이 가능할까?

II. 피해와 가해의 당사자가 해석하는 가정폭력 사건

아버지가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당위, 규범적 설명이 지배적이다. ‘남자라면 그 정도 힘든 일은 참아내는 게 당연하지’ 라거나 ‘정상적인 아내라면 남편이 들어올 시간에 맞춰 밥을 해 놓는 게 마땅하지’ 와 같은 말들. 인간과 세계를 어떤 역할, 규범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기능적인 설명 방식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자신을 포함해 우리의 생각, 행동, 결정은 늘 불완전하며 혼란스럽게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이 설정한 역할 규범에 비추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해석한다.

그 스스로 강제하는 남성, 남편, 아버지로서의 성역할규범은 달성해야 하나 완전한 실천이 어려우며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규범이다. “아버지, 형제, 군대, 결혼, 아내와 자식들, 가장이라는 경제적 기능, 성기의 크기, 성행위의 강도와 횟수, 여자관계에서 돈이 가지는 힘, 남성다운 신체와 성격, 남들에게 받는 남자대접 등.”(최현숙) 아버지는 소득과 지위가 낮고, 학력이 낮으며, 노년에 가까운 고립된 주변적 남성으로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남성, 남편, 아버지로서의 ‘평범함’이 그에게는 더욱더 갖추기 어려운 것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억압된 성역할규범을 강제한다. 또한 자신에게 그러하듯이 아내, 자식도 가족 안에서 자신의 도리(역할 규범)를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그의 반복된 실패처럼 이상적인 아내, 엄마, 자식으로서의 도리 실천에는 규범을 실천할 수 없는 긴장, 혼란, 좌절이 뒤따라온다. 요구하는 자신도 타인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에 반복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조차 소외시킨 아버지의 시야에선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힘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해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그러므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나 정당해 보이는 아내와 자식들은 언제나 그의 가까이에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제외한 가족 안의 실패자들을 처벌하고 교화를 강제함으로써 자신의 허약한 남성성을 보충해 나갔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할 도리’를 명분으로 언제나 타자의 실패와 책임만을 묻는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되었다.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와 성역할규범 안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아 실패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아무리 잘하려고 의지를 다져

도 정례적으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머니는 ‘이번에도 사단을 일으킨 자’로, 그래서 폭력 사건은 ‘기어코 일탈을 해 이 사단을 만든 어머니로 인해 일어난 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정례적인 폭력은 가족들에게 제 할 일을 각인시키고, 폭력을 통해서라도 가족을 보호하는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도덕적 우월성까지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문제 많은 아내를 참고 사는 남편이라는 허위적 인식으로 ‘이전에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을 네가 또 저질렀고, 나는 또 노력하고 널 참아주고 있어’ 라는 논리로 아버지는 아내, 자식에 대한 비난, 분노, 피해의식의 감정을 키워나간다.

이런 사건의 연쇄 속에서 어머니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내가 늘 저주고 참아주니 너에 비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나 내가 얼마나 고생이야.’ 이런 허위적 인식은 어머니에게도 뿌리 깊게 내면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고 존재를 무시하는 해석들은 어머니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통증을 유발한다. 자신의 정당함을 믿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나는 최근에서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해석은 틀렸어. 어머니는 못난 사람이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 해석은 틀렸어.’ 그러나 아버지의 해석을 끊고 자신의 경험과 존재를 긍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들로 자신을 오랜 시간 소외시켜온 어머니는 30년 넘게 아버지가 주는 말과 밥을 자신의 뱃속으로 꾸역꾸역 집어넣었을 것이다.

Ⅲ. 피해, 가해 당사자의 자기 인식과 그 결과

어머니가 생각하는 ‘상처 받고 고통 받은 사람’이라는 자아상은 강력하다. 피해 경험에 수반되는 극렬한 정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왜곡에 맞서 자신의 생생한 피해 경험을 부정당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피해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은 강력하다. 아버지의 자기 인식은 늘 문제를 유발하는 어머니를 교정하고, 건사하는 방식으로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피해 의식에서 기인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상은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가해 경험을 철저히 부정하는 방식으로,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피해 경험에 사로잡히는 방식으로 자아상을 단일한 모습으로 좁혀가는 자기 인식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다양한 위치를 경험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신을 소외시키는 인식. 자기고통의 현상과 원인을 모르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인식을 반추하지 못하면 자기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정례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는 위치를 고통 받으며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가해진 피해의 경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식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다른 모습들이 존재한다. 또한 아버지는 그가 부정하는 가해의 경험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억압적인 정상성 규범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심리학자 정혜신은 그의 저서 『당신이 옳다』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지워나가는 자기 소멸이 극에 다다라 자기가 흐려진 사람은 반드시 병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자기소멸’이란 개념으로 공황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기성이 소멸된 채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은 절대적 의존 대상이던 그 부모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빛을 잃을 때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정혜신)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오랜 시간 공황 발작으로 고통 받고 있음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의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하고도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동가능하다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 자아상을 자신의 영구적인 정체성으로 고정시키지 않음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자신을 거쳐 간 다양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IV. 나가며, 고통의 가치에 주목하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은 위험하다.” (레베카 솔닛) 자신 안의 다양한 경험들을 직면하고, 내면의 타자를 발견한 우리가 예전의 익숙했던 모습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집을 뛰쳐나오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나는 고통의 가치에 주목하자고 말하고자 한다. 레베카 솔닛의 말에 따르면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돌보지도 않기” 때문에. 레베카 솔닛은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나병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통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나병은 신경을 짓눌러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게 만들 뿐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은 그 부위를 돌보지 않게 된다.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다. 스스로가 제 손가락과 발가락, 발, 손을 베이고 화상을 입고, 멍들게 하고, 벗겨지게 하다가, 결국 그 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돌보지도 않는다.”

앞서 언급한 나병의 정확한 병명은 ‘한센병’이다. 47)피부에 나타나는 병적 변화의 종류에 따라 ‘나종한센병’과 ‘결핵한센병’으로 나눌 수 있다. 레베카 솔닛이 언급한 한센병은 결핵성 한센병으로 추정되는데, 증상이 나타난 피부 부위는 무감각 또는 과다 감각 상태가 된다. 때문에 결핵성 한센병에 걸려 손, 발, 신체부위에 외상이 잦아져도 돌볼 수 없어 신체 일부가 썩거나 절단되기도 하는 것이다. 고통은 아픈 몸을 치료하고 해결하

47) 네이버지식백과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한센병”,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6579&cid=51007&categoryId=51007&anchorTarget=TABLE_OF_CONTENT3#TABLE_OF_CONTENT3

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이다. 나는 내면이 보내오는 고통의 신호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희망을 준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자신을 심리적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억압적인 역할 규범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딛고 그곳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참고문헌

벨 흑스, 『올 어바웃 러브』, (책읽는수요일, 2012)

정혜신, 이명수 『당신이 옳다』, (해냄출판사, 2018)

권김현영, 루인, 정희진, 한채윤, <참고문헌없음>, 『피해와가해의페미니즘』, (교양인, 2018)

최현숙, 『할배의탄생』, (이매진, 2016)